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Promo Plus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잉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응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072호

Thursday, July 18, 2024 A

수미 테리가 ‘스파이’?…제2의 코리아게이트 우려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 기소
CIA 출신,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한국요원에 금품 받고 정보 넘겨”
국정원 활동 드러나 외교과장 우려

“해당 기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은 채 사실상 한국 요원으로 활동했다.”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의 한반도 안보 전문가로 워싱턴 한인사회와도 친숙한 수미 테리(52)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미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지난 15일 연방법원 재판에 넘겨졌다. 테리를 기소한 연방 검찰은 그가 10여 년간 미국 주재 한국 공관에서 근무하는 국가정보원 요원들로부터 고가의 가방과 의류, 고액의 현금 등을 받은 대가로 미국의 비공개 정보 등을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동맹국인 미국에서 벌여 온 해외 첩보 수집 활동의 구체적 내용과 부적절한 관행이 공개되며 외교적으로 과장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금품으로 손쉽게 정보원을 포섭해 급한



1 지난 5월 제주포럼에 참석한 수미 테리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2 2021년 4월 워싱턴DC의 한 명품숍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이 루이비통 핸드백을 구입하는 모습. 3 2020년 8월 수미 테리(왼쪽)와 국정원 관계자가 식사하는 모습.

정보를 끌어모으거나 단편적으로 활용하는 데 급급할 뿐 주제국 상황 등을 고려해 정교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국정원의 아마추어적 첩보 활동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17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뉴욕 남부 지방검찰청 공소장(총 31쪽)에 따르면 테리의 한국 정부 대리 활동은 2013년

부터 10여 년간 이어졌다. 미국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르면 외국 정부 등을 대리해 활동할 경우 법무장관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테리는 이런 규정을 알고도 신고를 누락했다. 그는 2016~2022년 최소 세 차례의 의회 증언 전서 과정에서 ‘FARA에 따른 신고 대상’인지 묻는 말에 “아니다”고 답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테리가 한 활동에는 한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기고 및 발표를 하거나 접근이 쉽지 않은 인사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도 포함됐다. 미 정부 관료와의 비공개 모임 등에서 획득한 정보를 넘기기도 했다.

밀워키=김형구 특파원, 유지혜·김상진 기자
▶ 2면 ‘수미 테리’ 로 이어집니다

기소된 수미 테리는 누구

서울서 태어나 12세 때 이민
NSC 부차관보 역임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나 12세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뉴욕대에서 정치학으로 학사 학위를, 보스턴 터프츠대 플래처스쿨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2001년부터 CIA에서 8년간 한국 담당 선임분석관을 지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한국·일본·오세아니아 담당 과장과 동아시아 국가정보 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했다. 이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 월슨센터 아시아프 프로그램 국장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미국의 아시아 및 한반도 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왔다. 탈북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비온드 유토피아(Beyond Utopia)’의 공동 제작자로 참여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보여왔다.

트럼프, 버지니아에서도 ‘승세’

바이든 흑인 지지율
67%에서 46%로 급락

민주당 텃밭으로 여겨졌던 버지니아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 공공정책대학원이 버지니아 유권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39%를 득표해 36%에 그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따돌

렸다. 작년 12월에 실시한 동일한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43%대 40%로 앞섰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10% 격차로 승리했었다.
이 조사는 6월24일-7월3일 사이 진행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실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실제 지지율 차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 기소에 대해 유권자의 53%는 그에



게 예전보다 더 투표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으나 31%는 예전보다 더 투표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6%로 이전 조사 때와 같았으나 흑인 유권자 표심이 크게 흔들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가도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흑인 유권자 비율은 67%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46%로 21%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보다 공화당 지지자들의 결집력이 훨씬 강했다. 민주당 유권자의 73%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할 의사를 밝힌 공화당 유권자 비율은 82%였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로버트 케네디 전 연방법무부 장관의 아들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9% 지지를 얻었다. 바이든 대통령 진영에서는 케네디 후보가 자신의 지지율을 잠식하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밖에도 질 스테인 후보가 2%, 코넬

웨스트 후보가 1% 지지를 얻고 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 지지율은 50%로 이전 조사에 비해 4% 포인트 하락했다. 특이하게도 연소득 2만달러 미만의 극빈층(71%)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으나 중산층은 상당히 낮았다.
11월 대선과 함께 치뤄지는 연방상원 의원 선거에서는 팀 케인 의원(민주당)이 49%를 차지해 38%에 그친 공화당 후보 형 카우를 멀찌감치 앞섰다. 버지니아 유권자들은 고물가, 여성 낙태권, 불법이민 문제 등을 주요 선거 이슈로 꼽았다. 불법이민 이슈가 매우 큰 문제라고 답한 비율은 52%였다. 김욱제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재입
순금 예기 물반지포함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굽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교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한미관계 순항기에 왜 갑자기? 수미 테리 기소 파장

미국에서 손꼽히는 한반도 전문가 중 한 명인 수미 테리(사진) 박사가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한 혐의로 미국 검찰에 의해 형사기소됨에 따라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당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캠프와 우리 외교당국 간 접촉이 수월하지 않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정보분석관 출신인 그는 미국외교협회(CFR) 등 싱크탱크에 몸담으면서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반도 문제 관련 각종 세미나에 패널로 단골 출연하고, 방송 논평가로도 나서며 왕성하게 활동해왔다.

북한 주민의 험난한 탈북 과정을 다뤄 국제적으로 호평받은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의 공동 제작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비공개'를 전제로 미국 정부 당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한국 정보 당국과 공유하고, 한미 정부 관계자들간의 미팅을 주선하는 등 활동을 하면서 한국 정부

측으로부터 저녁 식사와 명품 핸드백 등을 대가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미 테리 박사의 변호인은 그에 대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윤석열 정부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사이에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 경제안보 협력 강화 등으로 한미관계가 순항하고 있는 시기에 불거진 이번 사안은 워싱턴의 한반도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소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미국 수사 당국은 한국 정보 기관이 이번 사안에 연계된 것으로 보고 있어 앞으로 한미간의 원활한 정보 교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 보인다.

국가정보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 "한미 정보당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긴밀 소통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 일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보당국간 정보 협력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한국 정부가 트럼프 캠프 측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바이든 정부와는 공식적인 소통 채널이 있어 문제가 없겠지만, 트럼프 캠프 측 인사들은 이번 일로 한국 측과 접촉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업무에 밝은 한 관계자는 "트럼프 캠프 인사들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 한국 측과 접촉하는 데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기소는 한미 관계와는 별개로 단순 '법 집행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은 미국 국적

을 가진 전직 미국 공무원이 '모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행위를 하는 데 대해 엄정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이런 배경 속에, 미국 국적자인 수미 테리 박사에 대해 한미관계 등에 대한 정무적 고려없이 수사 및 기소가 진행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이번 사건은 미 해군정보국 컴퓨터 분석관으로 일하던 '로버트 김(한국명 김재근)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버트 김 씨는 해군정보국에서 일하던 시기에 미국 정부기밀을 주미한국대사관 관계자를 통해 한국 정부에 넘긴 혐의로 1996년 체포된 뒤 간첩죄로 기소돼 징역 9년에 보호감찰 3년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수미 테리 박사는 현직 공무원이 아닌 만큼 현직에 있으면서 정보를 유출한 사례와는 결이 다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싱크탱크에서 일하기 전까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CIA를 포함한 미국 정부 기관에서 근무한 전직 공무

원이다. 법원 서류에도 적시돼 있듯, 대북 전문가로서 미국 외교 당국으로부터 비공개로 전제로 입수한 정보를 한국 측에 제공한 것 등이 위법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직을 떠난지 10년 이상 경과한 그가 정부 기밀을 상시적으로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한미관계 소식통은 16일 "일차적으로 로비스트로 등록하지 않은 채 외국 정부를 돕는 행위를 한 데 대한 단속 차원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아직은 기소 단계인 만큼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론 등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그동안 한반도에서 중대 이슈가 발생할 경우 미국과 한국이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 양국간 정보 교류 및 현안분석에 있어 가교 역할도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일로 다른 전문가들의 활동도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 1면 '수미 테리'에서 이어집니다

테리는 이런 활동을 한 뒤에는 국정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 공소장에 나열된 품목은 2845달러짜리 돌체앤가바나 코트, 2950달러짜리 보테가베네타 핸드백, 3450달러짜리 루이비통 핸드백 등이다. 또 테리가 근무 중인 연구기관 프로그램을 위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기금 계좌로 3만 7000달러 상당을 수수했다고 미 검찰은 설명했다.

미 검찰은 공소장에서 테리의 활동을 지시한 국정원 담당자 등의 직급까지 공개했다. 10여 년간 테리를 관리한 담당자는 3명으로, 뉴욕 유엔대표부 공사와 워싱턴DC 주미 대사관의 공사참사관 2명이라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들이 테리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명품숍에서 물건을 산 뒤 계산하는 모습 등을 담은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소장에 담겼다.

테리의 혐의에는 미 정부는 물론 의회, 연구기관에서도 불쾌해할 만한 내

용이 담겼다. 대표적인 게 2022년 6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만난 뒤 테리가 내용을 국정원 담당자에게 넘겼다는 것이다. 당시 모임은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블링컨 장관과 국무부 고위 관료 외에 테리를 포함한 학자 5명만 참석했다. 원칙은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 '오프 더 레코드'였다.

하지만 테리는 국무부 청사를 나서자마자 국정원 담당자를 만났다. 담당자는 테리를 외교 변호관을 단 주미 대사관 등록 차량에 태웠고, 차 안에서 테리가 모임 중 적은 두 장짜리 메모를 휴대전화 사진으로 찍었다. 검찰은 이 사진도 공소장에 첨부했다. 테리는 조사 과정에서 모임 사실을 사전에 국정원 담당자에게 알렸다고 시인했다.

공소장은 테리의 대언론 활동도 밝혔다. 지난해 1월 국정원 담당자는 테리와 식사하며 윤석열 정부의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바람과 핵협의그룹(NCG) 창설 필요성, 미국 핵 전략자

산의 활발한 전개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테리는 이후 거의 같은 내용을 언론 등에 기고했다. 테리는 조사에서 자신에게 NCG라는 개념을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 국정원 담당자였다고 시인했다. 윤 대통령의 2023년 4월 국민방미를 앞두고 이뤄진 활동도 공소장에 드러났다. 대통령 방미 직전 이뤄진 한-미 싱크탱크의 동맹 관련 학술대회를 위해 테리가 소속 연구기관에서 움직였는데, 국정원 담당자는 이후 테리에게 2만 6035달러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미 검찰은 테리가 정보기관이 포섭 대상자를 물색해 평가하는 관행을 알고 있었다면서 "(국정원 요원에게) 미 의회 직원들을 소개한 것은 '늑대를 끌어들이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고 밝혔다.

미 검찰은 테리가 국정원 직원과 접촉 중인 사실을 동료 연구원에게 공공연히 밝혔으며, 본인도 지난해 6월 연방수사국(FBI) 인터뷰에서 자신이 2008년 CIA에서 사임한 건 국정원 요

원들과의 접촉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인정했다고 했다. 그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정원 요원들을 만나 접대받은 게 문제를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

테리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테리의 변호사인 리 올로스키는 뉴욕타임스에 "(검찰)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수년간 헌신해 온 학자이자 뉴스 분석가의 업적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검찰이 테리가 한국 정부를 대리해 활동했다고 주장하는 시절 테리는 되레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왔다"며 "사실이 밝혀지면 미국 정부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테리의) 외국대리인 등록법 기소 보도와 관련해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히 소통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국정원이 정보 수집 등을 위해 무리하게 로비하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염돈재 전 국정원 1차장(해외 담당)은 "과거 정보

기관은 '코리아 게이트'로 불리는 박동선 사건(1976년) 이후 미국에서 비정상적인 로비를 자제했다"며 "국정원이 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코리아 게이트는 한국 중앙정보부가 재미한국인 사업가 박동선씨를 통해 미 의회에 전방위 불법 로비를 했다는 사실이 워싱턴포스트에 폭로되면서 한-미 갈등을 빚은 외교 스캔들이다.

이번 사태로 학자적 양심과 독립성을 지키며 목소리를 내는 미국내 지한파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익명을 원한 워싱턴 소식통은 "한국 정부와 민간 싱크탱크 등 정보 교류가 당분간 경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로비 대상이나 규모로 볼 때 한-미 간 의견 교환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다만 한-미 모두 국내 정치적으로 문제시하면 일이 커질 수 있다. 특히 미 대선 국면에서 공화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이슈를 키울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밀워키=김형구 특파원, 유지혜·김상진 기자

워싱턴 날씨 (°F)

| | |
|--------------|--------------|
| 19일(금) 88~71 | 22일(월) 87~72 |
| 20일(토) 82~70 | 23일(화) 88~72 |
| 21일(일) 90~72 | 24일(수) 89~73 |

7월 18일(목) 89~69

워싱턴 중양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워싱턴 DC AKUS (한미연합회)

2024년도 제2차 한미 안보 강연회 (US-ROK SECURITY CONFERENCE)
"한미동맹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워싱턴 DC AKUS가 지킨다."

7.27 휴전협정 71주년을 기념하여 다음과 같이 제2차 한미안보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 일 시 : 2024년 7월 20일 (토) 오후 2시
- 장 소 : 코리안커뮤니티센터 (Korean Community Center)
6601 Little River Turnpike, Alexandria, VA 22312
- ▶ 문의 : 301-775-3919

연사와 강연 제목 (Speakers and Their Topics)

- David Maxwell : 전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대령)/휴전협정 과정과 그에 얽힌 이야기들
- 이정호: 전 39호실 고위직 탈북인사/ 좌파 인사들이 주장하는 중전협정과 평화협정의 위험성에 대하여
- Suzanne Scholte 회장: 북한자유연대가 벌이고 있는 사업 중에 한국에서 15명의 탈북인사들을 워싱턴에 초대하여 미의회 등과 여러 가지 행사를 벌였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는 기회가 될 것임

워싱턴 DC AKUS (한미연합회) 소개
워싱턴 DC AKUS(회장 오인환)는 2023년 6월 22일 Korean Community Center (KCC) 에서 "한미 동맹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워싱턴 DC AKUS가 지킨다!!" 는 기치를 걸고 창립 하였다. 미국본부(회장 김영길)는 New Jersey 에 있으며 미 전국에 30여개 Chapters 가 있고 한국(회장 송대성)에도 15여개 Chapters 가 있으며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워싱턴 DC AKUS (한미연합회) 회장 오인환 / 부회장겸 사무총장 장경태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 '전국 최상위권'

워싱턴메트로지역 1위는 이노바 페어팩스 병원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이 다시한번 전국 최상위권 병원으로 뽑혔다. 워싱턴 메트로 지역 최고의 병원은 '이노바 페어팩스 병원(사진)'으로 선정됐다.



아와 20개 시술 분야 전 영역에 걸쳐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5천여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모두 15개 전문분야, 20개 시술분야에 걸쳐 지역별 순위를 매겼다. 메릴랜드 볼티모어에 위치한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은 등위 없이 알파벳 순서로 나열한 전국 톱클래스 리스트 20개 병원 중의 하나로 선정됐다.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은 워싱턴 지역 중 유일하게 20개 병원 리스트에 속했다.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은 15개 전문분

이 1위에 올랐다. 이 병원은 4개 전문 분야와 17개 시술분야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메드스타 워싱턴 হাসপিটাল 센터(워싱턴DC)가 이노바 페어팩스 병원과 함께 공동 1위를 기록했다.

3위는 메드스타 조지타운 대학병원(워싱턴DC), 공동 4위는 조지워싱턴 대학병원(워싱턴DC)과 존스 홉킨스 메디슨-시블레이 메모리얼 병원(워싱턴DC), 버지니아 হাসপিটাল 센터(버지니아 알링턴), 7위는 메리 워싱턴 병원(버지니아 프레드릭스버그), 8위는 이노바 페어팩스 병원(버지니아 페어팩스), 9위는 존스 홉킨스 메디슨-서버번 병원(메릴랜드 베데스다)이 차지했다.

워싱턴 메트로 지역에서는 이노바 페어팩스 병원(버지니아 페어팩스)

김윤미 기자

워싱턴DC AKUS 한미안보 강연회

20일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 워싱턴DC AKUS(미한연합회, 회장 오인환)가 제2차 한미안보 강연회를 개최한다.

7.27 휴전협정 71주년을 기념해 마련되는 강연회는 오는 20일(토) 오후 2시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리며, 전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 데이빗 맥스웰 대령, 이정호 전 북한 39호실 고위관리, 수잔 솔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 등이 강사로 나선다. 워싱턴DC AKUS는 지난해 6월 '한미동맹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우리가 지킨다'는 목표로 창립했다. >문의: 301-775-3919

해외유공자 정부포상 후보자 명단 발표

'2024 세계 한인의 날(10월 5일)' 기념 해 재외동포 권익신장과 대한민국 및 동포사회 발전에 공헌한 해외유공자 정부포상 후보자 명단이 공개됐다.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유공자 정부포상 후보자는 개인 126명, 단체 12개다. 포상은 훈장·포장·표창이다. 재외동포청 측은 7월 22일까지 공개검증을 진행한 뒤 최종 유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검정을 통과한 유공자는 10월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에 맞춰 포상이 이뤄진다.

포상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한인회장대회 때 진행될 예정이다. 일부 유공자는 대통령이 직접 포상한다.

한편 재외동포청 웹사이트에 공개된 후보자 명단에서 미주 지역 한인 단체는 약 29이 포함됐다. 후보자에 대한 의견은 설명과 연락처를 기재해 재외동포청에 전달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미국 내 해외유공자 정부포상 후보자 명단

| 이름 | 소속 |
|---------------|-------------------------------------|
| 고지영 | 미국 코리아사이아티 부회장 |
| 권종길 | 미국 에이치마트 대표이사 |
| 김미경 |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글로벌사업부장 |
| 김영기 | 미시간한인문화회관 이사장 |
| 김윤태 | 시카고 워미디어 회장 |
| 김재래 | 시카고한인문화회관 회장 |
| 김현경 |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수석부회장 |
| 남중대 | 재학군인회 미북서부 지회장 |
| 방종영 |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수석부회장 |
| 변희용 | 버지니아한인커뮤니티센터 이사 |
| 신광수 | 서부플로리다한인회 회장 |
| 유지광 | 사이판한인회 회장 |
| 윤건지 | 휴스턴한인회 회장 |
| 윤영목 | 서북미 6.25참전 국가유공자회 회장 |
| 이영숙 | 한미문화교류재단 회장 |
| 최이호 | 보츠만 시인회 의원 |
| 이현성 | 미동남부한인연합회 자원위원장 |
| 임형민 | 한미총회 회장 |
| 장권일 | 필라델피아한인회 중앙위원장 |
| 장두석 | 아리랑 USA공동체 회장 |
| 장용진 | 키스그룹 회장 |
| 재미한국학교 동부부협의회 | 단체 |
| 제이리 | 한미장학재단 회장 |
| 찰스 허 | 피스트 캐어 메디칼 센터 대표이사 |
| 최명일 | 미동남부한인연합회 명예회장 |
| 클라라 김 | SeaSun Theatre Artist Group 대표 (단체) |
| 한미연합회 | 단체 |
| 황병구 |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명예회장 |



통일연대, "북한이탈 주민의 용기에 경의"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각계 150여명 참석 성황

대한민국 정부가 제정한 7월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워싱턴에서도 기념식이 성대히 열렸다.

지난 14일 미주통일연대 워싱턴(회장 김유숙)은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소재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한 행사를 거행했다.

김유숙 회장은 "워싱턴에서 성실하게 아메리칸 드림을 일구고 계신 탈북민 여러분의 용기와 열정에 감사와 격려를 드린다"면서 "여러분들을 위한 날을 축

하 드리며, 미국에서의 행복한 삶을 기원 드리는 동시에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도 앞으로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대사는 "미국 내 많은 탈북자들을 만났다"면서 "미국 정부는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한인들과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오공단 자유조선연합회 이사장,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대표가 축사를 전했고, 이정호 전 전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간부 및 이성운 우드로 윌슨 센터 연구원이 북한의 현실 및 통일의 가능성을 전하는 강연을 펼쳐 참석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오공단 자유조선연합회 이사장이 이날 "전세계 탈북자들을 기리는 추모비가 워싱턴에 세워지길 기원한다"고 언급한 가운데, 미주통일연대 측은 추모비 건립기금으로 1,000달러를 자유조선연합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정호 씨는 "북한이탈 주민 기념일 제정이 탈북민들에게 큰 용기를 북돋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기념식과 함께 열린 '통일대화' 세션에는 탈북민 출신 리현승 씨 사회로 터너 대사, 이성운 박사, 이정호 씨 등이 '통일'을 주제로 참석자들과 자유로운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박세용 기자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태영호 전 국회의원 내정

대통령 직속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사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17일(한국시간) 알려졌다.

태 전 의원은 민주평통 사무처장 후보로 인사 검증을 거쳤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재가만을 앞둔 것으로 전



해졌다. 민주평통은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관이다. 차관급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의장인 대통령의 명에 따라 민주평통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OMNI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최신형 X-Ray 완비
교정 및 물리치료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MD 지어인트 No. 1 에이전트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 / 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트럼프 비밀병기’ 며느리 라라 연설... 당원들 “USA” 열광

전대 둘째날 마지막 연설 나서 NYT “트럼프 축제의 호스트” 당 ‘돈줄’ 권 전국위 공동의장 PD 출신... 낙하산 인사 논란도

“잡언 28장에 악인은 아무도 쫓지 않아도 도망을 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한 마리의 사자입니다.”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린 16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컨벤션 행사장. 도널드 트럼프(78) 전 대통령의 며느리 라라 트럼프(41)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동의장이 “트럼프는 대담하고 강하며 두려움이 없다. 지금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자 행사장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당 대의원과 당원들은 “USA”를 연호하며 격하게 호응했다.

공화당 전당대회 이틀째인 이날 엔딩 무대를 장식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이는 ‘트럼프의 비밀병기’로 불리는 며느리 라라 트럼프였다. 지난 3월

공화당의 ‘돈줄’을 틀어쥔 전국위원회 공동의장을 맡으면서 트럼프의 핵심 참모로 급부상한 라라는 이날 트럼프를 지켜세운 약 20분의 찬조연설로 전당대회 행사장의 분위기를 한껏 뜨겁게 달궜다.

라라 의장은 “트럼프는 훌륭한 아버지이자 시아버지이고 제 두 자녀에게도 훌륭한 할아버지”라며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트럼프에게 투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며 찬조연설을 마무리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타블로이드 TV 프로듀서에서 당의 수장이 된 라라는 나흘간 열리는 ‘트럼프 축제’(공화당 전당대회)의 호스트”라고 평가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를 졸업한 라라는 2014년 트럼프의 둘째 아들 에릭(40)과 결혼했다. 2020년 대선 때 트럼프 선거 캠프의 선임고문으로 활동했고, 상원의원에 출마한 라라는 트럼프의 요청으로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동의장을 껴차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둘째 며느리 라라 트럼프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동의장이 16일 전당대회 단상에 올라 연설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하지만 당료 경향이 전무하다시피 한 라라가 ‘트럼프 패밀리’라는 이유로 전국위 공동의장을 맡은 건 전형적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막강한 실세 권력으로 장녀 이방카(42)와 그의 남편 제러드 쿠슈너(43)가 꼽혔듯 ‘트럼프

2.0’을 바라보는 현시점에서는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차남 에릭, 라라 등이 막후 실세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러닝메이트 JD 밴스를 트럼프에게 추천한 장남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재집권 시 인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

날 전당대회에서 트럼프의 당 대선 후보 확정을 발표한 이는 트럼프의 차남 에릭이었다. 에릭 곁에는 형 트럼프 주니어와 여동생 티파니, 라라가 자리하고 있었다.

예비경선 내내 트럼프를 ‘독재자’라고 몰아세웠던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대사와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 당내 정적들의 트럼프 지지 선언도 눈길을 끌었다. 2016년 경선에서 패한 뒤 트럼프 지지를 거부했던 테드 크루즈 텍사스 상원의원과 헤일리, 디샌티스가 이날 차례대로 단상에 올랐다.

헤일리는 “고맙게도 트럼프가 여러분의 이름으로 연설해 달라고 먼저 요청했고, 이를 기꺼이 수락했다”며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디샌티스와 크루즈도 트럼프의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트럼프는 이들의 발언 내내 뿌듯한 미소를 보였고, 수차례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밀워키=김형구·강태화 특파원

트럼프 “11월 대선 전엔 금리인하 안 돼” 9월 피벗에 견제구

블룸버그 인터뷰서 파월 압박

‘바이든 위한 경기부양 우려’ 분석

당선 땐 Fed 독립성 놓고 마찰 우려

“다이먼 존경, 재무장관으로 고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을 연일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대선 전 기준금리 인하에 반대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인터뷰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당장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끼치진 어렵지만, 향후 당선 시 Fed 독립성을 놓고 ‘불협화음’이 발생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어쩌면 그들(Fed)이 11월 5일 선거 전,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이 재집권할 경우 파월 의장이 임기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통화정책 변경을 검토 중이라는 최근 Fed의 움직임과 대치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인터뷰 공개 전날인 지난 15일 파월 Fed 의장은 “최근 3개월 지표로 (물가 둔화에 대한) 추가적인 확신을 얻었다”면서 “물가 상승률이 2%로 떨어질 때까지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 기다리면 너무 오래 기다렸음을 결국 깨닫게 될 것”이라면서 피벗 가능성을 재차 밝혔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터뷰는 지난달 25일에 이뤄졌기 때문에 이 같은 파월 의장의 발언과는 관계없이 이뤄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전 기준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표면적 이유는 현재의 물가가 금리를 낮추기에는 여전히 높다고 봐서다. 같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가 상승은 국가를 파괴한다”면서 “그들(Fed)은 금리를 낮추고 싶어 하는 꿈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물가가 높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비용을 낮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비용이 낮아지면 물가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용 인하 방법은 에너지 가격 하락이다. 특히 자신이 당선된 뒤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밀

린 석유와 가스 등 전통적인 화석연료 시추를 늘리면 물가도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치적 계산이 따로 깔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대선 전 기준금리 인하가 경쟁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추면 고금리로 인한 경제 부담이 줄면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또 임기 내 ‘피벗’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코로나19 이후 시작한 고물가 전쟁에서 바이든 정부가 승리했다는 일종의 정치적 홍보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는 재선 시 재무장관 후보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

영자(CEO)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재선 시 다이먼 CEO가 재무장관이 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저는 제이미 다이먼을 정말 존경한다”며 “그는 (재무장관으로) 제가 고려할 만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확인했다.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 계획은 미·중 무역관계를 근본적으로 종식시킬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지적이 나온다’는 물음에 “나는 (과거 재임 당시) 50%를 (적용) 했고, ‘60%’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60% 관세를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남준 기자 밀워키=김형구 특파원

DARCARS®

LEXUS OF SILVER SPRING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NYT 김치명인 소개...김치에도 명품이 있다

해물석박지·반지·송침채-오랜 전통 깊은 맛 주목

뉴욕타임스가 한국의 전통김치와 김치 명인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신문은 온라인 푸드섹션을 통해 한국의 기업인, 전직 가수, 유튜버 등이 정부 인증 김치 명인으로 선정됐으며 이들의 대표 김치를 소개했다.

16일 신문은 한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전통식품 명인(Korean Food Grand Master)' 5명이 맛있는 김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맛있는 김치 비법에 대해서는 이하연(65) 명인을 인용해 "좋은 재료"를 첫 번째로 꼽았다. 또한 김치 명인 5명은 대표 김치를 소개하며 전통김치 담그는 방법과 맛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치 명인들은 미국 등 세계에서 김치가 인기를 끄는 현상은 반겼지만, 대량생산 방식으로 자칫 김치 고유의 맛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문은 이하연 명인의 대표 김치로 '해물 석박지'를 꼽았다. 이 명인은 절인 배추와 무 등을 썰어서 만든 석박지에 해물을 추가한다. 특히 전복, 소라, 문어, 굴, 생새우 등과 양배추까지 들어간 해물석박지는 이 명인 외할머니부터 내려온 전통김치라고 한다.

해물무침으로 불리는 해물 석박지는 한국 김치협회 회장 겸 김치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 명인 덕에



이하연 김치명인이 김치를 담그는 모습이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에 게재됐다.

[뉴욕타임스 인터넷판 캡처]

널리 알려졌다. 강순의(76) 명인은 '백김치'의 대가로 유명하다. 강 명인은 24살 때 나주 나씨 25대 종손의 맏아들과 결혼했고, 시어머니에게 백김치 등 전통요리를 배웠다.

강 명인은 종손 맏며느리로 살아오며 가장 좋은 재료를 활용해 김치의 맛을 살렸다. 그의 백김치는 대추, 배, 밤 등을 넣지만 고춧가루를 넣지 않아 더 부드럽다고 한다. 그동안 그의 백김치는 한국에서 각종 상을 받으며 유명해졌다.

유정임(68) 명인은 김치의 대명사인 '포기김치' 대가다. 유 명인은 김치맛이 유명해지면서 1986년부터 품미식품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포기김치 담그기는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면서부터라고 한다. 어머니 밑에서 포기김치를 배웠고, 도시락을 납품하던 양계장 주인이 김치 사업을 해보라고 권유할 정도로 맛이 좋았다고 한다. 유 명인은 포기김치의 비법으로 '육수'의 중요성을 꼽았다. 말린 새우, 말린 홍합, 말린 표고버섯, 참쌀가루를 쓰면 김치의 풍미와 영양이 깊어진다고 한다.

팍가수 출신 윤미월(66) 명인은 조선 전통김치인 '송침채'로 유명하다. 윤 명인은 일본 도쿄에서 '윤케' 식당을 운영하며 김치를 알리고 있다. 그의 송침채, 통배추 김치는 19세기 양반 가문을 위한 요리책 '수의전서'를 따른다. 김치에 들어가는 전복, 문어, 황석어 젓갈이 김치맛을 더 개운하게 한다.

오숙자(83) 명인은 백김치인 '반지' 명인이다. 오 명인의 반지에는 12가지 이상 재료가 들어간다. 이 재료로 김치 속을 채운 뒤 소고기 육수에 담가 맛을 낸다. 반지는 유통기한이 짧고 손이 많이 가 일반인도 잘 모른다고 한다. 그만큼 조선시대 반지를 담그는 집안은 손에 꼽혔고, 오늘날 반지의 가치는 소중하다.

오 명인은 어릴 때 할아버지가 아주 가끔 반지를 입에 넣어줬고, 20대 초반 할머니에게 담그는 법을 배웠다고 한다. 그는 지금 김치 담그는 법을 전수하며 전통김치 명맥 잇기에 앞장서고 있다.

김형제 기자

한인 청소년 한국서 뿌리 체험

미국 등 해외 한인 차세대 1800여명이 한국에서 정체성 함양에 나선다.

15일(한국시간)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는 '2024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연수' 개막식이 열렸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이 주최하는 하계 모국 초청연수는 8월까지 총 8회에 걸쳐 6박 7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모국연수에는 미국 등 75개국 청소년과 대학생 1800여명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 체험장소로 경주를 방문해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월정교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둘러본다. 재외동포 이민 역사의 출발지인 인천에서는 개항장 탐방, 인천지역 학교 방문, 현지 청소년과 교류에 나선다.

또한 참가자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산타워▶코엑스

▶롯데월드타워를 탐방한다. 한국 산업현장인 인천 삼성바이오노스, 한국 GM도 방문한다.

이기철 청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식민지 지배의 역경과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뤘다"며 "한국의 발전상은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의미있는 역사적 교훈을 준다. 이번 모국연수를 통해 차세대 동포들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대롭게 하는 도전과 위기에 맞설 수 있는 민주주의 연대의식을 굳건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제1차 재외동포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를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 연수 확대의 원년으로 삼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2028년까지 모국 초청 연수를 매년 60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김형제 기자



확장 가동을 시작한 LA통합물류센터에서 한진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다짐하고 있다. [한진 제공]

한진, LA 통합물류센터 확장 가동

한진은 지난달 말 미주법인의 LA 풀필먼트(통합물류)센터 확장 공사를 완료하고 가동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사로 미주법인 창고 내 풀필먼트 기능 공간이 약 50% 넓어지면서 더 많은 한국 기업이 LA 풀필먼트를 교두보 삼아 현지 소매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한진은 기대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진은 한국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 진출할 때 필수 요건인 현지 직배송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윈스톱 물류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LA에 있는 한진 미주법인은 2022년 창고 크기를 2배로 늘려 현재 장소로 확장 이전했다. 지난해에는 물류 로봇

전문기업 '로커스 로보틱스'의 피킹(집품) 로봇과 자체 개발한 패키징(포장) 키오스크 등 자동화 시스템을 확대 도입했다.

K-브랜드의 성공담이 이어지며 국내 풀필먼트 수요도 크게 늘었다.

올해 1분기 미국법인의 풀필먼트 사업 물량과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62%, 450% 증가했다.

한진 관계자는 "국내 풀필먼트 물량이 지속해 증가함에 따라 현지 투자를 늘리는 등 선제 대응하고 있다"며 "풀필먼트 중심의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해 기존 고객 물량을 확대하고 신규 고객을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성 기자

스틸 "전당대회 참석"...영 김 "지역구 활동"

위스콘신 밀워키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 출신 한인 연방의원들이 엇갈린 행보를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선거의 꽃'으로 여겨지는 전당대회는 주별로 대의원들이 집결하면서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총 집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대선 후보의 면면도 보고 관련 참모들과의 네트워킹도 집중되는 시기인 탓이다.

가주 40지구와 45지구에서 오는 11월 3선을 노리고 있는 영 김 의원과 미

셸 스틸 의원은 트럼프 대선 후보 옹립에 대한 온도차이를 역력히 내보였다.

스틸 의원 측은 전당대회 참석을 위해 밀워키로 날아갔으며 내부적으로 마련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 측은 "스틸 의원은 가주 대의원 자격으로 17일(수)부터 밀워키 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따로 맡은 역할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반면 영 김 의원 측은 전당대회 일정에 불참한다고 알려졌다.

김 의원은 트럼프 암살 기도 직후

"평화로운 정치 활동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미국 역사 248년 동안 희망이 됐다"며 "폭력과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이전에 정해진 지역구 활동으로 밀워키에 가지 못했다고 전했다.

전통적으로 이민자 출신 유권자가 많고 다양한 소수계 커뮤니티에서 득표 작업을 해야하는 두 후보의 입장에서 트럼프에 대한 공개 지지 활동과 관련 공약 설화가 오히려 득표에 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유저의 딸인 **마이클 장**

딸인과 함께라면 유저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Neve Control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대장금(미락조울) 300m
웨일리노래방 뉴타운홈

미락조울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 지은 뉴타운홈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주세요~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① 워싱턴 중앙일보

직원 모집

워싱턴 중앙일보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 분야: 광고/편집 디자인 0명 일러스트레이터, 인디디자인, 포토샵, 프리미어
- 자격: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분
-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력서: **KC2018@GMAIL.COM**

트럼프 “대만 방위비 내야”

“대만, 미 반도체산업 다 가져가” 인터뷰 공개 뒤 TSMC 주가 하락

인공지능(AI) 열풍의 중심에 선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와 대만에 ‘트럼프’가 리스크로 부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면서 TSMC를 비롯한 대만 반도체 산업을 걸고 넘어지면서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공개된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거의 100%를 (대만이) 가져갔다”면서 “(미국은) 보험회사와 다를 바 없다. 대만은 미국에 방위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대만과 방위조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대만과의 관계를 규정한 미국 국내법에 따라 대만의 방위를 보장하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조치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용 청구서’를 내민 것이다. 인터뷰가 공개된 이후 TSMC

주식예탁증서(ADR) 주가는 17일 뉴욕증시에서 정규 거래시간 전 프리마켓이 열리자마자 4% 가까이 하락했다. TSMC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는 SK하이닉스 주가 역시 이날 이 여파로 코스피 시장에서 5.36% 하락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 TSMC, 삼성전자 등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반도체법 보조금에 대해서도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대만 이 새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하기 위해 미국은 대만에 수십억 달러를 주고 있다”면서 “그들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지만 나중에는 다시 대만으로 가져가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부터 4년간 재임하는 동안 ‘미국의 반도체 자급’을 강조하며 TSMC를 강하게 압박한 바 있다. 백기를 든 TSMC는 2020년 미 애리조나주에 6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희권 기자

3명 중 1명 “한 달 벌어 한 달 생활”

페이책 투페이책 34% 달해 “현재 임금에 만족” 19% 불과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 못 따라가

근로자 3명 중 1명은 저금을 하지 못하고 한 달 벌어서 한 달 생활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금융정보사이트 벵크레이트가 근로자 2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월급으로 겨우 생활비만을 충당하는, 이른바 ‘페이책 투페이책’으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의 비율이 34%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령대별로 본다면 X세대(44~59세) 근로자 중 저축을 하지 못한다는 대답을 한 비율이 40%로 가장 높았

다. 밀레니얼 세대(28~43세) 근로자가 34%로 뒤를 이었다. Z세대(18~27세)와 베이비부머 세대(60~78세)는 28%로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30대부터 50대까지의 근로자가 자녀 양육비 등의 지출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보면 남부(38%)와 중서부(37%)가 페이책 투페이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많은 지역으로 꼽혔다. 가주를 포함한 서부가 32%로 뒤를 이었고 뉴욕을 포함한 북동부에서는 25%만이 저축을 하지 못한다 대답해 비율이 가장 낮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금에 대한 불만도 컸다. 현재 받는 임금에 만족한다고 말한 근로자의 비율은 19%에 불과했다. 임금에 대한 만족도는 베이비부머 세대에서 26%로 가장 높았고 X세

대(20%)가 다음이었다. 밀레니얼과 Z세대의 불만족 비율은 16%였다. 연령층이 높을수록 임금에 만족하는 비율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다.
많은 사람이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힘들다고 말하는 현재 상황의 가장 큰 원인은 고물가로 나타났다.
벵크레이트의 사라 포스터 애널리스트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친 2020년 2월에 비교했을 때 생활비 물가는 21%가 올랐다”며 “이는 이전에 2000달러를 생활비로 쓴 사람이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420달러를 더 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이 물가상승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조용한 도둑’이라고 덧붙였다. 조원희 기자

집값 상승에 ‘좀비 모기지’ 피해 우려

주택 버블 당시 2차 모기지 대출 집주인은 ‘휴면’ 아닌 ‘탕감’ 인식 대출기관 압류 권리…차압 가능

#. 매사추세츠주 퀸시 지역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캐린 맥도너씨. 갑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들이 내민 것은 압류 경매장. 예상치 못한 압류는 2008년 주택 시장 붕괴 후 론 모디피케이션 요청이 발달이었다. 당시 모기지 회사는 두 번째 모기지가 론 모디피케이션으로 탕감됐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10년 만에 갑자기 차압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이다.
#. 옥스나드에 거주하는 리츠와 폴 차베스 부부도 오랫동안 모르고 살았던 2차 모기지 부채로 소급 이자를 계산해 원금보다 10만 달러 더 많은 약 25만 달러를 갚아야 한다.
이들은 요즘 전국적으로 수천 건의 사례가 터져 나오고 있는 좀비 모기지 피해자들이다.
2008년 주택시장 버블 동안 수 백

만명 주택소유주가 1차 주택 가치의 80%, 2차 20% 모기지 대출을 받았다. 주택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연방 정부는 차압을 막기 위해 모기지 조정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대출회사들은 1차 모기지는 이자율이 조정되고 2차 모기지가 탕감됐다고 말했고 그 이후 모기지 지불 청구는 중단됐다. 주택 소유주는 2차 모기지가 탕감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빛이 남아 있던 것이다.
크레이턴대학교 로스쿨 데이비드 웨버 교수는 “좀비 모기지는 휴면상태에 있는 모기지로 주택소유주가 2차 대출기관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다”며 “대출기관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차 좀비모기지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한인 주택소유주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노스웨스턴 캐피탈의 크리스틴 신

대표는 “한인들은 한 집에 15년 이상 거주하는 게 드물고 팬데믹 때 재융자한 경우가 많아 2차 모기지 피해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2차 모기지가 있다면 부동산 소유권에 저당권이나 유치권 기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택시장 버블 당시 1달러 미만 가격에 2차 모기지를 사들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소급 이자와 수수료를 부과한 다음 주택을 추심하고 압류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공영 라디오방송 NPR의 조사에 따르면 뉴욕에서 압류가 시작된 2차 모기지는 최소 1만 건이다. 메릴랜드에서도 10년 넘게 채무불이행 및 미지급 상태였던 최소 500개의 오래된 2차 모기지가 발견됐다.
최근 전국적으로 좀비 모기지 피해 사례가 급증한 것은 주택 가격 상승 여파다. 주택 가격이 올라 주택소유주들이 1차, 2차 주택담보대출을 충분히 갚을 수 있어서다. 이영영 기자

연준 경제동향보고서 “경제활동 정체 증가”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진전을 보였다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진 가운데 미국 내에서 경제활동이 정체되거나 감소한 지역이 늘어났다는 연준 진단이 나왔다.
연준은 17일 발표한 7월 경기동향 보고서(베이지북)에서 미국 내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담당 지역 중 5개 지역에서 경제활동에 변동이 없거나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 5월 말 나온 직전 보고서 때의 2개 지역보다 3곳 늘어난 것이다.
나머지 다수 지역에선 소폭(slight) 내지 다소 완만(modest)한 성장세가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임금은 대부분 지역에서 다소 완만(modest)하거나, 완만(moderate)한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임금 상승률 둔화가 보고됐다고 베이지북은 전했다.



뉴욕 증권거래소 앞 행인들

조사 대상자들은 경제 전망과 관련, 미 대선과 정부정책, 지정학적 갈등,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불확실성 탓에 향후 6개월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베이지북은 미국 12개 연방준비은행(연은)이 담당 지역별로 은행과 기업, 전문가 등을 접촉해 최근 경제 동향을 수집한 경제 동향 관련 보고서로, 통상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2주 전에 발표한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박찬욱 ‘동조자’ 로 에미상 조연상 후보

영화 ‘아이언맨’과 ‘셜록홈즈’ 등의 작품으로 유명한 열연한 할리우드 스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박찬욱 감독이 연출한 미국 드라마 ‘동조자’로 에미상 남우조연상 후보에 올랐다.
17일 미국 TV예술과학아카데미가 발표한 제76회 에미상 후보 목록에 따르면 다우니 주니어는 HBO 채널에서 방영된 ‘동조자’로 미니시리즈(Limited Anthology Series-Movie) 부문 남우조연상 후보로 지명됐다.
다우니 주니어는 이 드라마에서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과 하원의원, 영화 감독, 교육자 등 1인 4역을 맡아 열연했다.
그는 이번 에미상 남우조연상을 두고 조너선 베일리(‘펠로 트래블러스’), 톰

굿먼-힐(‘베이비 레인디어’), 존 호크스(‘트루 디텍티브: 나이트 컨트리’), 러몬 모리스(‘파고’) 등 배우들과 경쟁한다.
‘동조자’는 박 감독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연출-제작을 맡은 드라마로 관심을 모았으나, 남우조연상 외에 작품상이나 감독상 등 다른 부문에서는 후보에 들지 못했다.

한편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로 얼굴을 알린 한국계 배우 그레타 리는 애플 TV+에서 방영된 ‘더 모닝쇼’로 이번 에미상 시상식 드라마 시리즈 부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다.
이번 에미상 후보작 가운데서는 일본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쇼군’과 우리 사들의 애환을 그린 드라마 ‘더 베어’가 각각 20여개 부문 후보에 오르며 두각을 드러냈다.



지난 4월 드라마 ‘동조자’ 시사회에 참석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오른쪽)

마이클 장

맞춤 융자의 달인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E2 비자/투자이민
- 취업/가족초청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종교비자/이민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에촌 앞 빌딩 3층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JULY 18th - JULY 25th, 2024

Real Sweet Potato Bread
대두식품 진짜 고구마빵



DAEDOO FOODS



6+2
 BUNS

2개 더 드림
국내산
찐고구마 함유
22.56 OZ

\$8.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세계 최초 탈북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미국 전지훈련을 환영합니다.



From Baseball to Freedom

CHALLENGERS USA TOUR



CHALLENGERS USA TOUR 2024. 7. 18 - 7. 28

NEW YORK

07.18 - 07.21

WASHINGTON, D.C.

07.21 - 07.28

• 챌린저스 워싱턴 디씨 친선 경기 일정

1. 챌린저스 vs. 챌린저스 pUS (한인2세 연합팀, 7.22 4:00pm)
2. 챌린저스 vs. 워싱턴 내셔널스 유스야구단 (7.26 10:00am)

• 장소: 워싱턴 내셔널스 유스 아카데미 / 3675 Ely Pl SE, Washington, DC 20019

• 후원 및 경기 관람 문의 : (사) 새한반도야구회 미주이사 강고은 / shegohealing@gmail.com

CUCKOO

쿠쿠 7월 시원한 세일

기간: 6.27.2024 ~ 7.29.2024 조건: 기간내 주문 & 7월 내 설치

사은품으로
신제품
받아본 적 있어?

신제품
360° Rotation
Air Circulator
CP-ACH100WH
\$149.99
Value

신제품
Powerclone
Cordless Vacuum
CVC-M100HW
\$349.99
Value

*도매점/온라인/사은품용대용

일시불 구매 최대 30% 할인 & 쿠쿠 신제품 증정

프리미엄 제품 구매시

- 1건: 30% 할인 + 티타늄 워시 증정
- 2건 이상: 30% 할인 + 파워클론 무선 청소기 증정

프리미엄+일반 제품 구매시

최대 30% 할인 + 360도 에어서클레이터 증정

*일반제품의 경우 할인 가격 적용



렌탈시 다운페이 면제 & 쿠쿠 신제품 증정

1건 일반제품: 전기보온포트 증정
프리미엄 제품: 360도 에어서클레이터 증정

2건 파워클론 무선 청소기 증정

3건+ 파워클론 무선 청소기 +
360도 에어서클레이터
증정



베스트 셀러 제품 특별 할인



CP-P011G

CP-MN031BK

렌탈 계약시
다운페이 면제 + 360도
에어서클레이터 증정

*연말 간수/재품에 따라 다름

인상전 가격으로
특별한 혜택!

신제품 안마의자 런칭 이벤트

4D 제품 \$2,000 할인 + 파워클론 무선 청소기 증정



일시불
최대 \$2,000 할인

렌탈시
다운페이 \$500 할인

*3D제품 할인율과 사은품 다름



Virginia

리빙스토리 Centreville 703-975-1313
H Mart Annandale 240-595-2257

Maryland

롯데마트 Ellicott City 410-750-8011
힐링마을 Ellicott City 443-878-9010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딩 & 동일 설치처 필수
-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프리미엄 제품: CP-SB102HW, CP-TN100S/D5, CP-P011T/G, CP-QN14015W, CP-RN501HW, CP-FN601HA, CP-FR601HW, CP-FR601SW, CAC-F3010FW, CAC-D2020FW, ND-A060RFG, CBD-AM101W

일반 제품: CP-ADR0511UW, CP-MN031W/BK, CAC-C1020FW, CBT-1S1131REW/RRW, CWS-A0201W, CBD-AM106W

사은품은 지역/매장/판매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 및 결정권은 CUCKOO AMERICA INC. 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무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 및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해당 프로모션 필수 고객 시 사은품 중복 증정, 단 신제품 고객 최대 1개 증정

888.700.0425 | CUCKOORENTAL.COM |

특정 계약자/매장/판매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 및 결정권은 CUCKOO AMERICA INC. 에 있습니다.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안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우메켄 NEW 아이클리어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 넣은 우메켄 NEW 아이클리어를 추천합니다"



정미란 안과 전문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한국 소아안과학회 (KAPOS) 정회원
한국 백내장굴절수술연구회(KSCRS) 정회원
미국 백내장굴절수술연구회(ASCRS) 정회원
미국 안과학회(AAO) 정회원

- 은행잎 추출물
- 자색 고구마
- 비타민 A
- 루테인

- 마키베리 추출물
- 포도씨 추출물
- 제아잔틴
- 빌베리 추출물

온가족 눈 건강 지킴이

아이클리어(정)



개별 PTP 포장

- 산소와 열로부터 보호
- 위생적인 개별포장
- 간편한 휴대성

소중한 눈도 믿을 수 있는 우메켄에서 지켜드립니다

- ☑ 눈 노화, 안구 건조증과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피곤한 눈을 지켜주는 최적의 보충제
- ☑ 눈의 영양 공급이 필요한 어린이부터 눈 노화 집중 케어를 원하는 시니어까지

눈 건강개선 특수 성분 8가지 함유

- 루테인 • 제아잔틴 • 빌베리 추출물 • 마키베리 추출물
- 포도씨 추출물 • 자색고구마 분말 • 은행잎 추출물 • 비타민 A

출시 기념 행사

▶ 7월 28일까지

아이클리어 구매 시 씨밸런스(\$39) 무료 증정
같이 드시면 항산화 효과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드세요

- 일상생활에서 침침한 눈으로 자주 불편함을 느끼는 분
- 스마트폰, TV, 컴퓨터 장시간 사용하시는 분
- 노화, 스트레스, 유전적인 요인으로 황반변성 위험도가 있는 분
- 사물을 바라볼 때 편안하지 않고 흐리게 보이는 분
- 안구건조증 및 눈 노화의 집중 케어를 원하시는 분
- 눈의 영양 공급이 필요한 어린이

888-941-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파주 355mm 폭우, 장마철 강수량 93% 쏟아졌다

의정부엔 시간당 103.5mm 퍼부어 좁고 강한 비구름, 특정지역만 때려 “북한 황강댐 무단 방류 가능성도”

17일 아침 수도권에 시간당 최대 100mm 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올해 첫 긴급 재난문자(CBS)가 발송됐다. 곳곳에서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 지역에는 19일까지 최대 20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 경기도 의정부에 시간당 최대 103.5mm(8시22분), 서울시 성북구에 시간당 84mm(9시33분)의 비가 내렸다. 경기도 파주는 시간당 101mm(7시3분)를 기록하며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누적 강수량은 이날 오후 5시까지 355mm를 기록했다. 중부지방 장마철 평년 강수량(378.3mm)의 약 93%가 17시간 만에 쏟아진 것이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남서풍이 수증기를 계속 공급하고 북쪽에서는 건조 공기가 내려오면서 비구름



경기 북부에 내린 집중호우로 17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의 도로가 물에 잠겨 있다. 이날 오전 의정부와 파주에는 시간당 100mm 전후의 많은 비가 내려 도로 침수가 속출했다. [연합뉴스]

이 강하게 발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비구름이 선형(띠 형태)으로 발달하면서 비가 특정 지역만 때리는 경향을 보였다. 설명이다.

기록적인 폭우에 경기 북부와 서울에선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주민 김재성(52)씨는 “자유로 당동IC 일대 도로에 물이 20여cm 정도 높기로 차올라 가까스로 빠져나왔다”며 “주변 도로로 우회해 출근했다”고 말했다. 임진강 하류 저지대에 있

는 문산은 1996, 98, 99년 세 차례 집중호우 때 주민 35명이 숨지고 178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기북부경찰 112상황실에는 이날 오전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약 300건의 호우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신호등 고장 신고가 203건으로 가장 많았고, 토사 유출 21건, 교통사고 12건 등이었다. 오전 10시쯤에는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 지하차도에 차량에 갇혀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운전자를 구조하기

도 했다. 양평군 부용리에선 옹벽이 무너져 한 가구 세 명이 대피했다.

서울에선 청계천·불광천 등 시내 하천 29곳과 도로 세 군데가 통제됐다. 오전 9시42분쯤에는 종로구 창의문에서 북악스카이웨이로 가는 왕복 2차로 도로에 토사가 쏟아졌다. 이 때문에 평창동 북악산로 안전펜스 일부가 무너졌다. 비는 정체전선(장마전선)이 북상하며 오후 들어 소강상태를 보였다. 하지만 기상청은 18일까지 정체전선이 느리

게 다시 남하하면서 수도권과 충북 북부에 시간당 30~60mm, 많게는 시간당 70mm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17~19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0~150mm(많은 곳 200mm 이상), 강원 내륙·산지 50~100mm(많은 곳 180mm 이상), 강원 동해안 20~60mm, 충청권 80~150mm(많은 곳 200mm 이상), 전라권과 경북 북부 30~100mm(많은 곳 150mm 이상), 경북 남부 30~80mm, 경남과 전남 남해안 20~60mm, 제주도 5~20mm 수준이다.

한편 군남댐과 한강홍수통제소·연천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임진강 최북단 군사분계선 인근 남방한계선에 있는 필승교 수위가 급상승했다. 오후 1시30분 0.62m였던 수위는 불과 10분 만에 두 배 수준인 1.21m까지 올라갔다. 군남댐 관계자는 “비가 많이 내리자 북한 황강댐이 (사건 통보 없이) 방류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위성영상 모니터링 결과 방류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면서도 “최종적인 방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은혜·전익진·최모란·김서원 기자

북한 매설 ‘나뭇잎 지뢰’ 주의보

군 “폭우 틈타 흘러보낼수도”

군 당국은 17일 북한이 집중호우 때 지뢰를 하천에 흘려보낼 수 있다고 보고 대비태세 점검에 나섰다. 지난 4월부터 비무장지대(DMZ)에 수만 발의 지뢰를 매설하는 행보가 예상되지 않다는 게 합동참모본부의 설명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기존 목함지뢰와 대인지뢰뿐 아니라 육안으로 구분 어려운 ‘나뭇잎 지뢰’(사진)도 매설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나뭇잎 지뢰 폭약량은 40여g으로 대인지뢰(20여g)와 목함지뢰(70여g)의 중간 정도 폭발력을 지닌다. 합참 관계자는 “호우 종료 이후 물이 빠질 때 물가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황강댐·봉래호·평강댐·임남댐 등 남북 공유 하천에서 집중호우를 틈타 도적으로 기습 방류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근평·이유경 기자



세금 적고 교육환경 좋은 나라로... ‘이민 티켓’ 사는 한국 부자들

국내 고액자산가 순유출 세계 4위 상속세 없는 싱가포르 가장 선호 미국 투자 이민에도 신청자 몰려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A이민업체 본사에서 미국 투자이민 설명회가 열렸다. 30~40대 가족부터 머리가 희끗희끗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30여 명이 참석했다. 40대 김모씨는 “자녀에게 한국 외 다른 나라 선택지를 주고 싶어서 미국 영주권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즘 주말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투자이민 설명회가 열린다. 원종훈 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본부장은 “자산가들은 상속세 등 세금이나 교육 등의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재산뿐 아니라 거주지와 자녀 교육까지 해외로 분산한다”며 “투자 이민도 (만약을 대비한) 제2의 인생보험으로 챙긴다”고 말했다.

영국의 투자이민 컨설팅업체인 헨리앤드파트너스는 올해 한국의 부자 순유출 규모는 약 1200명으로 예상했다. 중국(1만5200명)과 영국(9500명), 인도(4300명) 다음으로 4위다. 지난해 800명으로 7위로 올라섰는데, 올해 순위가 세 계단 뛴 셈이다. 유동성 자산

한국·싱가포르의 주요 세금 비교

| 구분 | 한국 | 싱가포르 |
|--------|--|----------|
| 상속·증여세 | 최고세율 50%(대주주 할증 시 60%) | 0% |
| 배당소득세 | 15.4%(지방세 포함,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 49.5%) | 0% |
| 법인세 | 9~24% | 17%(단일세) |

자료: 양경설 은세 세무사, 이갑진 설명

한국, 부자 순유출 세계 4위

단위: 명
*올해 유동성 자산 1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자산가 1년의 절반 이상을 타국에서 보내는 경우가 기준임

| | | |
|---|-------|--------|
| 1 | 중국 | 1만5200 |
| 2 | 영국 | 9500 |
| 3 | 인도 | 4300 |
| 4 | 한국 | 1200 |
| 5 | 러시아 | 1000 |
| 6 | 브라질 | 800 |
| 7 | 남아프리카 | 600 |
| 8 | 대만 | 400 |

자료: 헨리앤드파트너스

기준 100만 달러(약 13억8000만원) 이상 보유한 자산가가 타국에 6개월 이상 머무는 경우가 대수이다. 실제 국제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외전출세 신고자는 26명(신고세액 92억8500만원)으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28명) 수준으로 회복했다. 법인을 운영하는 대주주가 이민 등으로 한국을 떠날 때 보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게 국외전출세다.

국내 사업가가 가장 선호하는 행선지는 싱가포르다. 상속·증여·배당소득세 등 3대 세금이 없고, 안정적인 치안, 국제적인 교육 환경도 부자들을 끌어들이는 요소다. 한국에서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했던 K씨(72)도 코로나 직전에 가족과 싱가포르행을 택

한 데는 상속세 영향이 컸다. 그는 “이대로 회사를 물려줬다간 60% 상속세(대주주 할증 포함) 폭탄을 맞을 수 있었다”며 “(자녀들이) 재원 마련으로 회사 주식을 팔면 경영권조차 흔들릴 수 있어 사업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 이주·이민 컨설팅을 하는 이영상 이갑진컨설팅 대표는 “은퇴한 70대 자산가뿐 아니라 40~50대 IT 사업가나 코인 부자 등이 싱가포르 영주권 관련 상담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금융과 교육 인프라를 누리는 틈새 이민처로 입소문난 곳도 있다. 바로 조호르해협을 사이에 두고 싱가포르와 마주한 말레이시아 최남단 조호르바루. 말레이시아 투자·이민 전문기업인 유원인터내셔

널의 조현 대표는 “다리만 지나면 싱가포르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싱가포르 대비 집값이나 물가가 낮아 사업가나 은퇴자, 영어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수요가 많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처럼 상속·증여세가 없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투자 이민 비자를 발급받은 한국인은 446명이다. 코로나 직전인 2019년(695명)의 60% 수준으로 회복됐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를 유지한다면 세금 압박을 피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사업가가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보험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유니티 보험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보험/재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유니티의 강점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유니티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888-756-7549

쇼핑센터 | DC 건물 | 리스팅하실 건물주 분들!

Looking "FORE" the Landlord



미국 3대 상업용부동산 회사 Marcus & Millichap의 업무형태로 쇼핑센터를 직접 투자하고 관리한 경험으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들이 있습니다



케빈 신
커머셜 부동산
전문



703.395.3123

“서이초 1주기... 학교, 투쟁의 장 됐다”

교원들 “교권보호 체감 아직 먼 길
가해자들, 보복성 신고로 교사 압박”

“애미 애미 없는 선생이네. 판정 개같이 하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사인 A씨는 지난 3월 반 대항 피구 경기에서 옆 반 학생 B군에게 욕설과 함께 이런 말을 들었다. B군은 이후에도 A교사의 이름을 붙인 저주 인형을 만들어 날카로운 것으로 찌르는 등 이상 행동을 했다. 결국 A씨는 B군을 교권보호 위원회에 신고했다. 한 달 넘게 걸린 심의 끝에 B군에게 내려진 처분은 ‘교내 봉사(1호)’.

사건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1호 처분이라도 안 나왔으면 오히려 아동 학대로 교사가 보복성 신고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교사들은 여전히 교권이 바닥에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18일은 서울 서이초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해당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교원단체 주장이 나오며 교권 보호를 외치는 목소리가 전국에 퍼졌다. 교육부는 문제 학생 즉시 분리, 민원전담팀 설치 등 대책을 내놓고 관련 법도 개정했지만, 현장에선 “체감되는 변화는 없다”는 반응이 다수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침해 신고 건수는 2019년 2662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크게 늘었다. 교보위가 학교에서 지역교육청 관할로 옮겨진 올해 3월~6월 1364건의 교보위가 열렸다.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시 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추모객들이 헌화 뒤 묵념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교원단체가 안전한 교육 환경을 촉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그러나 교보위는 “처분 속도가 느리고, 처벌 수위도 약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올해 교보위를 거쳐 전학·퇴학 조치된 경우는 103건(9.1%)으로 지난해 대비 2.9%포인트 줄었다. 가장 낮은 수위인 학교·사회 봉사는 536건(46.9%)으로 전년보다 22.4%포인트 늘었다. 학부모 상대 처분 역시 낮은 수위인 서면 사과는 62건(56.4%)인 반면 고소·고발은 한 건도 없었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여자 화장실에서 교사 몰카를 촬영한 2학년 학생이 출석정지 10일 처분에 그쳤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교권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전수민 변호사는 “원래라면 출석정지가 아니라 강제전학이 이뤄졌을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사를 향한 아동학대 신고도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지난 6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는 총 553건이었다. 교육청은 “교사를 아동학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교권보호 5법 개정 때 보건복지부 등의 반대로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무산됐다. 특정 직군만 제외하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학부모도 불만이 없지 않다. 최근 한 초등학생의 아동학대 신고 건을 맡은 C 변호사는 “한 학생을 하루에 서너번 씩 불러 같은 훈계하는 등 교사 역시 지나친 행동을 하기도 한다”며 “학부모가 민원을 넣으면 곧바로 교사가 교권 침해라고 반응해 일이 커지는 사례도 더러웠다”고 말했다.

최민지·서지원 기자



한-베트남 미래대화에서 베트남 대표단이 17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가운데)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왼쪽)와 이혁 전 베트남 대사(오른쪽 둘째)가 함께했다. 김현동 기자

“한국·베트남,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 되게 준비를”

한국-베트남 미래대화

홍석현 “베트남 동남아 1등국 될 것”
대학생들 “한류가 이질화 극복 수단”

‘한-베트남 미래대화’(이하 미래대화)에 참석중인 국립 베트남 외교아카데미(DAV) 학생 대표단이 17일 중앙홀딩스를 방문했다. 중앙일보와 재단법인 한반도평화재단(이사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가 공동으로 주최한 미래대화는 양국 MZ세대들에게 교류와 협력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시작한 신세대 민간 교류 프로그램이다.

홍석현 재단 이사장은 이날 “1970년대에 세계은행(IBRD)에서 경제분석관으로 근무하며 베트남이 동남아에서 1등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했다”며 “현재 베트남의 경제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당시 전망이 현실로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베트남이 교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해지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젊은 세대들이 잘 준비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여 명의 베트남 대표단을 인솔하고 있는 황 반 하임 DAV 차장은 “베트남과

한국은 유교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등 유사한 측면이 많다”며 “한국과 베트남 남녀가 이룬 다문화 가정을 중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15일 도착한 베트남 대표단은 통일부 산하 한반도통일미래센터를 찾아 한국의 분단 현실을 이해하고, 한국 대학생들과 경제 및 문화 분야의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서인후(22)씨는 “양국의 기업이나 단체가 다양한 합작 프로젝트를 운영한다면 미국과 중국 중심의 공급망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베트남 학생들은 베트남 여성의 한국 내 정착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며, 베트남에 불고 있는 한류가 양국의 문화 이질화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단은 방한 기간 JTBC일산 스튜디오를 찾아 한류 방송 콘텐츠 제작 현장을 체험하고, 국립중앙박물관과 전쟁 박물관에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들은 18일 수원의 삼성전자 박물관에서 한국 산업의 현대화 과정을 직접 살펴본 뒤 19일 돌아간다. 정용수 기자

필리핀 가사관리사, 손빨래·상차림 안해요

서울 시범사업 구제 업무범위 나와

오는 9월부터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가 제시됐다. 기본적인 아이 돌봄 업무뿐만 아니라 동거가족을 위한 간단한 세탁·청소·설거지 등은 가능하지만, 손빨래·손결레질 등 도구 없는 청소, 동거 가족을 위한 음식 조리, 쓰레기 배출 등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모호하고 복잡한 탓에 실제 일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지거나 과도한 업무 풀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대리주부·돌봄플러스 등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기본 업무는 ‘아이 돌봄’이다. 구체적으로 ▶식사(분유 수유, 젖병 소독, 반찬 조리 및 먹이기, 간식 제공, 설거지) ▶목욕 ▶배변(기저귀

갈기, 배변활동 도움) ▶등하원(편도 15분 이내 어린이집·학교·학원 등) ▶낮잠 재우기 ▶방청소 ▶옷 세탁 등이 있다.

단, 청소기·세탁기 등 도구 없이 손결레질이나 손빨래는 시킬 수 없다. 유모차나 유아 매트 등 전문 세탁이 필요한 육아용품 세척도 불가능한 업무다. 또 세탁 업무만 가능하고, 아이 옷을 포함한 다림질 업무까지 할 수 없다. 아이 식사를 넘어서서 어른을 위한 식사를 조리하거나 상차림을 하는 것도 안 된다.

동거가족을 위한 가사 업무도 일부 가능하나, 상당 부분 제한돼 있다.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세탁물을 사전에 분류해놓은 경우에 어른 옷까지 세탁기를 돌릴 수 있다. 아이 식기와 함께 어른이 사용한 식기 설거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옷·장난감·식기·냉장고 식품 등을 수납 정리하거나 외부에서 장을

보는 업무는 할 수 없다. 음식물·일반·재활용 등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것도 할 수 없다. 청소 범위도 베란다·현관이나 천장·유리창 등 손에 잘 닿지 않는 곳은 제외된다. 어른 신발 돌봄이나 반려동물을 돌보는 행위 등도 할 수 없다.

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유는 한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 간 협의 때문이다. 양국은 아이 돌봄을 기본으로 하되 ‘명시된 업무를 넘어서지 않는 한 동거가족을 위해 부수적이며 가벼운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업무협약(MOU)에 담았다.

하지만 실제 가정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업무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실적으로 무수한 집안일 하나하나를 모두 규정에 담아 행동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관리서비스지부장은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훑어봤지만, 여전히 해석하기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질 여지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세종·나상현 기자



진로직업박람회에 쏟아지는 17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4 서울 진로직업박람회에서 학생들을 비롯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 장 강 동 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료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invisalign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더더 많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우리말 바꾸기

‘낯설’이 낯설다고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새로운 곳에서 느끼는 ‘낯설음’은 나를 항상 설레게 만든다”와 같은 게시 글이 많이 올라와 있다. 이처럼 ‘낯설다’를 명사형으로 만들 때 ‘낯설음’이라고 쓰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표현이므로 주의해 써야 한다.

우리말에서는 용언(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동사, 형용사)을 명사형으로 만들 때 받침의 유무에 따라 ‘-ㅁ’이나 ‘-음’을 붙인다. 용언의 어간에 받침이 없을 땐 ‘-ㅁ’을 붙이고, 받침이 있을 땐 ‘-음’을 붙여 명사형을 만든다.

예를 들어 ‘설레다’는 어간 ‘설레’가 받침 없이 끝나므로 ‘-ㅁ’을 붙여 ‘설렘’이라고 명사형을 만들면 된다. ‘귀찮다’의 경우엔 어간 ‘귀찮’이 받침 있는 말로 끝나므로 ‘-음’이 붙어 ‘귀찮음’이 명사형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용언의 어간이 ‘ㄹ’ 받침으로 끝날 땐 ‘-음’이 아닌 ‘-를’을 붙여야 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 써야 한다. 한글맞춤법 제19항에는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만들다→만들’ ‘줄다→줄’ ‘힘들다→힘들’ 등과 같이 원형을 밝혀 적는다.

‘낯설다’는 어간이 ‘낯설-’로, ‘ㄹ’ 받침으로 끝난다. 따라서 명사형을 만들 때 ‘-음’이 아닌 ‘-를’을 붙여야 하므로, ‘낯설음’이 아닌 ‘낯설’이라 해야 바른 표현이 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디아스포라 시선

뉴질랜드 한인의 보편적 정체성



전후석
다큐멘터리 감독

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 교수의 대답이었다. 마오리족은 영국인보다 500여 년이나 먼저 뉴질랜드에 정착했다. 하지만 영국인이 몰려오며 양쪽은 토지 분쟁과 주권 문제로 전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마오리족이 희생됐다. 이로 인해 마오리족의 문화와 존재 자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20세기 중후반부터 마오리족의 문화와 전통 복원 운동이 일어났고 이제 그들의 문화는 뉴질랜드라는 국가 정체성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우리와 별 연관성이 없어 보이던 마오리족의 정체성을 배워야 한다는 정 교수의 대답에는 여러 해안이 내포되어 있다.

첫째는 정체성의 관계성이다. 정체성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만 존재한다. 그렇기에 정체성은 상대적이고 관계적이다. 타자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상태로 자아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없다.

둘째는 정체성이 형성되는 구체적 맥락의 중요성이다. 똑같은 한인이지만 미국에 사는 한인의 정체성과 뉴질랜드에 사는 한인의 정체성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자아에 대한 인식은 각 국가의 정치적 상황, 이민자에 대한 수용성, 소수계의 역사, 경제적 차이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정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이 거주하는 사회의 구체적 맥락, 역사 등을 통해 자아와 자신의 공동체에 대한 개념화가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정체성의 보편성이다. 정체성의 문제는 자아에 대한 사유인 동시에 권리의 문제, 평등의 문제, 사회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현대 사회에서 마오리족이 직면한 가난과 불평등은 현재 진행형이고 중층적이며 복잡하다. 그것은 흡사 미국의 아메리카 원주민 혹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역사와도 유사하다. 한인보다 먼저 차별과 희생을 경험했고, 투쟁과 권익 운동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정체성을 규명한 그들의 발자취와 토대 위에 한인 정체성이 형성된 것은 자명하다. 그렇기에 결국 정체성의 문제는 우리 공동체를 초월하는 보편적 사회적 가치와도 이어진다.

앞에서 언급한 것들이 배제된 채 한인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은 불안전할 수밖에 없음을 정 교수는 지적한 것이다. 태평양을 건너는 미국행 비행기에서, 앞으로 뉴질랜드 한인 2세, 3세들에게 정 교수의 삶과 철학이 선사할 긍정적 효과에 대해 상상해보았다.

이아침에

스스로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최경애
수필가

전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그 운전자를 숨지게 한 친지가 있었다. 그 친지는 사고 직후 구급차를 부르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에서 다른 차들을 막아섰다. 이런 노력 덕에 그의 죄는 과실치사로 경감됐고 당시 경찰은 두려움에 떨던 그를 잡까지 데려다줬다.

당시 도로에는 안개가 자욱했고, 차들은 비상등을 켜고 느린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앞 차량이 멈추고 운전자가 도로로 나서는 상황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친지는 그 운전자가 살아 있기만을, 다른 차들이 쓰러진 그를 비껴가기만을 염원했다고 한다. 그 일로 인해 본인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가

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람의 진가는 이런 극한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 같다. 나도 그 친지처럼 사태 수습을 먼저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직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긴다면, 뒤에 따라오는 그 무거운 짐들을 어찌 감당하겠는가? 그 친지는 일생일대의 가장 훌륭한 선택을 통해 자신에게 선물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직을 사회의 근간으로 삼는 것은 거짓이 세상을 활쾌하게 하기 때문이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거짓이 난무하여 믿음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면 세상은 어두움에 휩싸일 것이다.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것들뿐이다. 나에게 자유를 찾아주고 나를 평화롭게 해 주는 것은 내가 나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을 때다. 나를 구렁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주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일 것이다.

몸의 때를 닦아내듯 마음을 닦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습관은 아닌 것 같다. 마음을 닦는 일은 어렵다. 복잡한 미로를 헤매는 느낌이 앞서는 바람에 오히려 마주 보는 것이 두려워진다. 마음의 필름을 돌려 과거라는 시간에 밀어 넣는 방법을 택할 때가 많다.

특히 양심을 대적하고 눈 감았던 갈등이 죄의식의 바이러스가 되어 양심 안에 어두움의 뿌리를 내리고, 그때마다 닦아내지 못한 작은 조각들이 쌓이게 된다. 그럴수록 회피하려는 방어기제가 강해진다. 이럴 때 양심의 불마져 꺼져있는 상태라면 거짓이 진실을 대신할 수밖에 없다.

뺨소니 운전자와 피해자는 잘못된 장소와 시간에 운명처럼 부딪쳐 버린 악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운전자가 도피하려는 비합리보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피해자를 선택한다며 악연은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피해자를 구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사면의 기회도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에서 갑자기 자동차 문을 열고 나오는 운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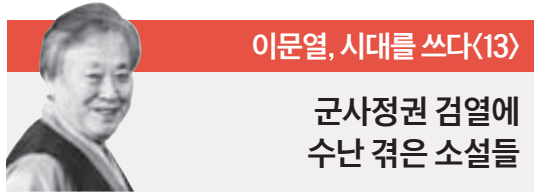
443-288-6677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이문열 집주소 대라” 출판사들이닥친 공수부대



이문열, 시대를 쓰다(13)
군사정권 검열에 수난 겪은 소설들

1979년 내 등단작 '새하곡(塞下曲)'은 한동안 읽을 수 없는 소설이었다. 출제작 『사람의 아들』 안에 끼워져 그해 6월 출간됐지만 슬그머니 빠져버린 후 아무 데도 재수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새하곡'을 다시 읽을 수 있게 된 건 5공화국이 저물던 1987년 말 출간한 소설집 『구로(九老) 아리랑』에 실리면서다. 나는 그때 '새하곡'의 맨 마지막에 '작자부기(作者附記)'라는 항목을 덧붙였다.

“이 작품의 배경이 된 군대는 최소한 15년 전의 군대다. 다소간 부정적인 묘사가 있더라도 이 글의 목적이 처음부터 고발이나 폭로에 있지 않았거니와 이제는 모든 것이 개선된 줄로 안다.”

불필요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새하곡'은 '금서'로 낙인찍힌 소설이었다. 내 소설 중 '새하곡'만 그런 게 아니었다. 심심치 않게 여러 작품이 문제가 됐다.

“참으로 나쁜 때에 글쓰기를 시작했구나. 어쩌면 이제 막 벗어난 것 같은 연좌제보다 더한, 새로운 감시와 처벌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우울해지기까지 했다.

사실 '새하곡'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응모할 때부터 걱정되긴 했다. 280쪽 분량의 원고를 깔끔하게 '공타' 인쇄하기 위해 작은 형님의 인쇄소에 넘기기 전 검토하던 중 문제점을 발견했다.

“연좌제보다 더한 감시 기제” 생각에 우울

3박 4일간의 전방부대 모의 전투 훈련이 배경인 소설에서 ROTC 출신 통신과장 이 중위는 입대가 늦은 강병장 등의 모든 것을 방기한 채 탐탁만을 추구하는 듯한 자세를 추궁한 끝에 이런 답을 듣는다.

“니힐이요, 병사의 절망입니다.”

모든 병사는 군번과 함께 '병사의 절망'을 잠재 의식 속에 지급받는다. 모든 것을 타아(他我)에게 맡겨버린 자아의 절망. 사람에게 존재를 부여하는 생명까지도 자기 것으로 가지지 못한 병사의 철저한 무(無). 소설 속 강병장처럼 입대가 늦었던 나는 내가 경험한 군대에서의 절망을 소설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었다.

그런데 소설을 응모하던 1978년 말은 유신 체제의 말기, 군사문화가 정점에 이른 시기였다. 군대에 부정적이거나 비우호적인 이야기가 과연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 걱정되기 시작했다. 결국 5공화국 내내 출간할 수 없었으니 괜한 기우(杞憂)였던 것만도 아니었다.

'새하곡'이 언제 초판 『사람의 아들』에서 빠졌는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1980년 4월 30일 발행된 '10판' 『사람의 아들』에는 있었다. 이듬해 1월 30일 발행된 판본에는 중편 '새하곡' 대신 단편 세 편, '제쳐는 노래' '달팽이의 외출'과 '이 황량한 역에서'가 들어 있다. 두 판본의 사이에 당국의 개입이 있었을 텐데, 1980년 하반기라면 계약사



이문열씨도 1980년대 검열의 칼끝을 피하지 못했다. 등단 중편 '새하곡'부터 군대를 부정적으로 그렸다는 이유로 7년간 금서 신세였다. [중앙포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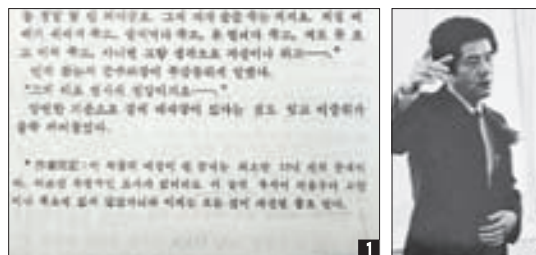
군대 얘기 다룬 등단작 '새하곡' 장교·사병 주먹다짐 등 문제돼 5공화국 7년내내 출간 못해 “참 나쁜 때 글쓰기 시작했구나”

1980년 5월 발표한 '필론의 돼지'

광주항쟁과 맞물려 정치적 해석 공수부대원 피해 가족들 피신 '사과와 다섯 병정'은 수정후 출간

합수부 심의실에서 간행물의 출생신고서에 해당하는 납본 필증을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불온한' 책들의 출간을 통제하던 시기다.

'새하곡'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는 한참 후에야 들을 수 있었다. 군 보안사라고만 신분을 밝힌 내 담당은 문제가 생기면 주로 신라호텔 커피숍으로 나를 불러냈다. 5공화국 후반, 나도 나름 유명해졌을 때다. 소설에 불온한 대목이 있는 데다 군 기밀이 함부로 다뤄지는 것처럼 소설에서 그려져 문제였다는 얘기를, 그런 점들을 문제 삼는 자기네에게도 고충은 있다는 식의 얘기까지 곁들여 들려줬다. 불온한 대목이란 하극상 주먹다



1987년 말 출간된 소설집 『구로아리랑』에 수록된 중편 '새하곡'의 마지막 페이지. '작자부기'가 붙어 있다. 2 1980년대 초반 '작가' 동인을 함께 했던 소설가 김원우(왼쪽)씨와 이문열씨. 1991년 김씨가 동인문학상을 수상했을 때다. 3 이문열씨의 단편 소설 '사과와 다섯 병정'을 원작으로 한 1985년 KBS 'TV 문학관'의 한 장면. [사진 이재유, 유튜브 캡처]

짐으로 변신 장교와 사병 간 갈등, 기밀과 관련된 문제는 고위층이 탑승한 비행기의 이륙 시간을 보안성 떨어지는 조급 음어로 통신병들이 주고받다 처벌되는 상황이 더러 있는 것처럼 소설에서 묘사된 점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소설에 앙심 품은 공수부대원들의 행패

1980년에 발표한 단편 '필론의 돼지'는 온 가족을 일주일가량 피신하게 만든 작품이다. 5월 '광주 사태'(5·18 광주민주화운동) 직후, 전속 계약은 없었지만 전속이나 다름없었던 민음사의 여성 편집자가 다급하게 전화를 했다. 조금 전에 민음사 사무실로 공수부대원들이 찾아와 내 주소를 알아갔으니 가족과 함께 며칠간 도피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상사 하나에 하사 둘, 모두 세 명의 공수부대원은 술 냄새까지 풍기며 힘压한 말로 경리 여직원을 협박해 내 주소를 받아갔다고 했다. 자신들이 이미 광주에서 저지른 것이 있는데 무슨 짓인들 못 하겠느냐며 이문열이라는 작자를 용서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더라는 얘기였다.

'필론의 돼지'는 육군 제대병 전용 열차칸에 대여섯 명의 공수부대원이 뛰어들어 주먹만 믿고 제대병들로부터 돈을 뜯다가 낭패를 당하는 이야기다. 공수부대원들의 위세에 놀려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돈을 뜯기던 제대병들은 두어 명의 영웅적인 제대병이 차례로 저항한 끝에 자신들의 힘을 확인하지만 이번에는 자기들이 눈먼 증오의 집단 감정에 빠져 공수부대원들에게 난폭한 복수를 가한다. 민음사에 들이닥친 공수부대원들은 그런 소설 내용에 앙심을 품은 것이었다.

'필론의 돼지'가 수록된 작가 동인의 동인지 『작가 1』은 1980년 5월 1일 민음사에서 출간됐다. 그런데 소설책 출간 직후 '광주사태'가 터지자 '필론의 돼지'가 정치적으로 읽힐 가능성이 커졌다. 제대병 열차는 독대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로 회귀하는 당시 정치 상황, 공수부대는 신군부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수난 끝에 폭도로 변한 제대병들을 신군부에 저항한 광주 시민으로까지 읽게 되면 '필론의 돼지'는 민주세력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소설이 된다.

나는 당시 반(反)군부독재라는 대의 같은 건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저 내가 목격하던 사건을 비틀어 카프카적인 암울한 상황을 만들어 본 거였다. 사상이나 표현의 자유는 사치이자 꿈이라고 생각했고, 아버지의 죄가 내 죄의 뿌리라는 점을 철저하게 믿고 살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작품으로 인해 오해를 사는 일이 몹시리처지게 싫었다.

당시 나는 대구 매일신문 기자로 일하고 있었

다. 민음사 편집자의 조언대로 가족들을 불러낸 다음 국민학교 시절을 보낸 밀양으로 갈까 하다가 그에 조금 못 미친 유천역(楡川驛, 지금의 상동역)에 내렸다. 남천강 상류 강변에서 일주일쯤 지내다 대구로 돌아왔지만 가족들만 집으로 들여보내고 나는 두세 주가량 집 바깥을 떠돌았다. 집 거실의 불이 꺼져 있으면 집에 들어가 자고 불이 켜져 있으면 들어가지 않았다. 아내와 사진 약속에 따른 것이었다.

나중에 알아보니 공수부대원들은 공식적인 임무 수행을 한 게 아니었다. 개별적인 일탈 행동이었다. 나를 혼내 주겠다고 특별외박을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향이 대구 방향인 한 공수부대원이 휴가 나온 김에 대구의 내 집 근처를 살피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도 공수부대 장교로 있던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들었다.

'필론의 돼지' 역시 『구로아리랑』에 수록돼 7년 만에 독자를 다시 만났다. 소설에는 원래 '공수부대'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공수부대를 상징하는 베레모로 표현했을 뿐이었다. 나는 소설을 재수록하며 '검은 베레모'를 모두 '검은 각반'으로 고쳐 썼다.

1981년 단편 '사과와 다섯 병정' 이야기도 해야 했다. 5월에 역시 민음사에서 출간한 작가 동인의 두 번째 동인지 『작품』에 수록했던 것인데, 6·25 전쟁 중에 산사(山寺)에 맡겨졌던 '만사'라는 인물이 자신의 뿌리를 찾는 과정에서 한국전쟁 중에 국군이 국군을 죽였다는 끔찍한 진실을 맞닥뜨린다는 이야기다.

선거 타락상 그린 '분호난장기' 통째 삭제

나는 이모에게서 억울한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배가 고향던지 전선을 이탈해 소설에서처럼 과수원에 침입해 사과를 따 먹던 국군 다섯 명이 마침 독전(督戰) 임무를 띠고 순찰 중이던 아군 헌병대에 적발돼 즉결 처분됐다는 것이었다.

30년 전의 일이기도 하고, 무슨 기록이 남는 것도 아닌 종잡을 수 없는 이야기여서 소설로 써도 별문제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문제가 됐고, 결국 그해 6월에 출간한 내 소설집 『어둠의 그늘』에는, 국군 헌병을 인민군으로 고쳐서 수록해야 했다. 전쟁의 어처구니없는 가혹함을 드러내려 했던 소설이 반공 정훈 교재 비슷하게 돼버린 것이다. 그 래선지 '사과와 다섯 병정'은 훗날 학생들의 논술 교재로 개발되기도 하고, KBS 'TV 문학관'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다.

내 금서 목록은 더 있다. 1980년 말 소설집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는 이가 빠진 소설책이었다. 1970년대 대통령 선거인단 역할을 했던 통대(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의 타락상을 그린 단편 '분호난장기(糞胡亂場記)'와 시골 경찰의 부패 행각을 건드린 '암포 신문인협회(岩圃新聞人協會)'가 통째로 빠져 버리고, 악행을 일삼다 멸문(滅門)으로 끝난 한 양반 집안을 그린 '기상곡(奇想曲)'에서는 악덕 기업주, 노조 탄압 공장주 등을 비판한 두세 쪽을 고스란히 삭제해야 했다. 역시 5공화국의 끝이 보이던 1986년 8월 출판사를 나감으로 바꾼 판본에서야 소설들의 원형을 복원할 수 있었다.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챗터 7·챗터13·학자금용자 감면
서브챗터 5·챗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시오.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시 설

국제 망신 자초한 국정원의 아마추어 공작

미국 뉴욕의 연방 검찰이 중앙정보국(CIA)의 대북 분석관 출신인 한국계 한반도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16일(현지시간) 기소했다. 비공개를 전제로 미국 정부 당국에서 확보한 정보를 그가 신고하지 않은 채 한국의 정보기관에 제공하는 등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했다는 혐의다. 미 검찰 측은 그를 “한국 정부의 요원(agent)”이라 적시하고, “한국 정부의 지시를 받아 활동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고 한다. 테리 연구원이 한국 정보요원들과 만나 정보를 전달하고 대가로 명품 핸드백과 코트, 뒷돈을 받은 것으로 미국 측은 보고 있다. 일종의 ‘간첩’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일단 테리 연구원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사실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미 연방 검찰이 나름의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대는 정보 전쟁의 시대다. 정보 수집 활동을 하다 목숨을 잃거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을 동원하는 사례도 많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켜야 할 철칙은 은밀성이다. 자칫 발각될 경우 정보 수집 루트 자체가 차단되고, 국제적인 망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미국 검찰이 테리 연구원과 국가정보원 직원의 접촉 상황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한 공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보 수집 활동이 ‘꼬리’를 잡힌 어이없는 아마추어 공작 시도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국정원 원훈(院訓)이 무색한 헛

발질이다. 국정원은 그동안 많은 성과를 냈지만 명성에 먹칠을 한 사례도 한둘이 아니다. 러시아에서 활동하던 조모 참사관이 1998년 북한 관련 정보를 빼내려다 발각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이 주미 한국대사관의 국방무관 백모 대령에게 기밀을 넘긴 혐의로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된 적도 있다. 이 명박 정부 때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투숙 중인 인도네시아 대표단의 숙소에 정보요원이 들어가 노트북을 뒤지다 현장에서 발각돼 망신을 산 건 정보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으로 꼽힌다.

문제는 이런 헛발질이 자칫 외교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조모 참사관 사건으로 한-러 양국은 정보요원을 맞추방하며 냉랭한 관계가 한동안 이어졌다. 주한미군 감축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미국의 회에 로비하다 들뜬단 1976년의 박동선 사건은 게이트로 커지며 한-미 관계가 위기로 치달았다. 이번 사건은 한-미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은 시점에 미국이 작심하고 나섰다라는 점에서 예상일이 아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이 외교 문제로 번져 양국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하되 신속하게 대응하는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철저한 해명을 통해 사과할 건 사과하고, 비 온 뒤 땅이 굳는 관계로 관리하는 태도가 절실한 시간이다.

미, 간첩 혐의로 한국계 한반도 전문가 기소 제2 박동선 사건 되지 않게 적극 해명, 대처를

국가의 분열 부추기는 극단 유튜브 규제 시급하다

충격적이던 국민의힘 전대 폭력사태(15일)를 일으킨 이들이 정치 유튜브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폭력사태를 일으킨 유튜브 3명을 16일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측에 따르면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는 유튜브 A씨는 한동훈 후보가 연설하는 도중 여러 차례 “배신자”라고 고함을 쳤다. 그러자 한 후보를 지지하는 유튜브 B씨가 A씨의 뒷머리를 가격하면서 몸싸움이 시작됐다. 여기에 원 후보를 지지하는 또 다른 유튜브 C씨까지 끼어들면서 난장판이 벌어졌다는 게 골자다.

유튜버들의 막가는 행태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당의 세력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보수 진영에서도 이런 사고가 터진 것은 정치권 전체가 저질 유튜버들에게 크게 오염된 상태임을 보여준다. 정치 유튜버들이 급격히 불어난 것은 정파적 매체가 필요한 정치인들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신문·TV와 같은 전통 미디어는 주장보다는 객관적 팩트를 우선시하며, 특정 집단이 아니라 국민을 보도 대상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논쟁적 사안에 대해 검증을 중시하고 중립적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유튜브에선 얼마든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일방적으로 떠들 수 있고, 노골적으로 정파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정치인 입장에서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데 극렬 유튜버만 한 도구가 없다.

하지만 부작용이 너무 크다. 유튜브에선 팩트보다 진영논리가 먼저다. ‘적’을 공격하기 위해 근거 없는 황당한 무머도 마구 끌어다 쓴다. 수퍼챗(후원금) 수익을 올리려고 막말·욕설도 서슴치 않는다. 이러다 보니 유튜브가 선동과 혐오의 온상이 됐고, 그에 비례해 정치 는 계속 저질화됐다.

나아가 유튜브는 정치 양극화를 조장한다. 당장은 듣기 불편해도 자신과 다른 의견도 함께 청취해야 사고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 구미에 맞는 얘기만 골라 듣게 되면 세상을 보는 시선이 점점 왜곡·편향된다. 정도가 심해지면 자신과 조금이라도 견해가 다른 집단은 모두 적대시하게 된다. 이러면 민주주의의 핵심인 관용과 타협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지금 실제로 한국 정치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처럼 유튜브가 현실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데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제정해 유튜브·페이스북 등에 올라온 가짜뉴스·혐오 표현을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할 만하다. 사안의 성격은 다르지만 최근 막방 유튜버 쓰앙이 다른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한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사이버 레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막나가는 생계형 극단 유튜버들에 대한 사회의 종합적 대책이 시급하다.

트럼프 머리에 한국은 입력됐을까

김현기의 시사각각

時 視 各 角



#1 재능은 본능을 이기지 못한다. 이성도 본능을 앞서지 못한다. 이번 미국 대선도 두 명의 본능이 판도를 뒤흔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 그리고 AP통신 에반 부치 사진기자다. 먼저 트럼프. 그는 총소리가 난 순간 짹째게 연단 아래로 몸을 숨겼다. 그는 뉴욕 군사학교 출신이다. 그 DNA가 살아 있었다. 나이 78에 대단한 순발력, 체력이 다. 그리고 이어진 세 차례의 ‘fight’(싸우자) 외침. 주먹 권 오른손을 높이 치켜 든 본능은 기력이다. 미안한 말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었던 어땠을까. 아마 경호원에게 얽혀 가거나 기절하지 않았을까. 트럼프 1기 워싱턴 특파원으로 있으면서 썼던 글을 찾아 보니 ‘과괴 본능’ ‘막말 본능’ 등 수많은 본능을 트럼프에게 수식어로 달았다. 물론 부정적 묘사였다. 5년이 지난 이제야 알았다. 그 모든 걸 뛰어넘고도 남는 천부적 ‘정치 본능’이 트럼프에게 있다는 걸. 2021년 폴 리처상을 받았던 부치의 본능도 극적이었다. 혼란스러운 현장임에도 사진 구도가 완벽했다. 사진에서 가장 안정적 구도는 삼각형이다. 부치는 트럼프가 치켜 든 오른손 주먹을 정점으로 아름다운 삼각형을 잡았다. 밑에서 직접 눈으로 앵글을 잡아 웅장함도 있었다. 행운이 겹치지만 역광이 아닌 순광이라 과란 하늘이 선명하게 선조기와 대비됐다. 다른 사진기자도 같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저 카메라를 치켜올린 채 셔터만 눌렀다. 세기의 사진과 그저 그런 사진은 그렇게 갈렸다.

#2 충격 사건이 일어난 건 오전 7시5분(이하 한국시간). 첫 메시지를 낸 건 스타머 신임 영국 총리였다. 두 시간 만인 오전 9시15분에 “경악했다.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할 수 없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이어 호주(오전 9시28분), 일본(오전 9시59분)의 정상이 뒤를 이었다. 다른 주요국 정상들도 대체로 비슷한 시간대에 움직였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실의 대처는 이상하리만큼 늦었다. 미국 시간 기준으로 날짜가 바뀌어 다음 날 새벽(오후 2시38분)이 돼서야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SNS에 띄웠다. 트럼프가 300km 떨어진 뉴저지주 공항에 내리는 영상이 공개되고도 또 1시간이 지난 뒤의 늦장 대응이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주요 매체 관련 기사에도 한국은 빠졌다. 기억, 인내심의 한계가 모두 짧은 트럼프의 머릿속에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아마 미입력 상태일 것이다. 그럼 왜 그랬을까. 우선 바이든의 눈치를 본 것이라면 큰 오산이다. 트럼프는 ‘동맹이다, 뭐다’가 아닌 지도자와의 1대1 관계를 가장 중시한다. ‘똥다리를 두들겨보고도 건너지 않는다’란 말이 있을 정도로 신중한 일본이 기민하게 움직인 건 다 이유가 있어서다. 게다가 특별히 트럼프 편을 드는 내용도 아닌 테리를 규탄하는 평범한 메시지다. 또 하나, 만약 휴일 오전인 데다 대통령 행사 때문에 대응이 늦었던 것이라면

트럼프 본능만큼 신속했던 주요국 우린 7시간남게 지나 늦장 메시지 ‘트럼프 관리’ 소홀히 할 이유 없어

심각한 기강 해이다. 세 문장짜리 짧은 메시지를 내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일인가. 대통령실, 외교부 모두 참으로 본능도, 재능도 없다.

#3 미 대선이 이미 트럼프의 승리로 기울었다는 주장엔 동의하지 않는다. 두 가지 이유다. 첫째, 미 대선은 결국 보수·진보 진영의 투표율이 결정적 변수다. 이번 충격 사건으로 보수층이 결집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위기를 느낀 민주당 지지층이 더 결집할 수도 있다. 또 하나는 ‘10월의 이변’. 미 대선을 보면 늘 11월 투표일 직전에 대형 돌발 변수가 터졌다. 2016년에는 미 연방수사국(FBI)의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가 발표되면서 판세가 180도 뒤집혔다. 2020년에는 트럼프의 코로나 감염이 결정타가 됐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트럼프 쟁기기’를 소홀히 해야 할 이유는 없다. 안 그래도 윤 대통령이 바이든과의 의리를 너무 중시해 밑의 사람들이 움직이기 어렵하다는 소문이 벌써 워싱턴과 외교가에 파다해 하는 얘기가. 외교에서 의리는 실리를 이기지 못한다.

는설위원

중앙일보

| | |
|---|---|
| <p>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ibfe.joongang.co.kr 광고 접수 02-751-6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물품·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제1종) 인쇄업자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의 FINANCIAL TIMES, 일본의 NHK, 日本経済新聞</p> | <p>시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국 편집국장 김중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p>구독료 월정 20,000원 1부 1,000원</p> |
|---|---|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5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지
편하게!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TALK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만권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항공권+유심칩
 현지 구매하시면 할인해드립니다

미동부 투어가이드
 에이전트(센터빌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inf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VISIT KOREA YEAR 2023-2024
 한국방문의 모든것!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고품격 고국일주

10박 11일 / \$2990+항공

31년 전통 탑여행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고국투어! 직접 모시고 갑니다.

마감 3차 9/24-10/4
마감 4차 10/15-10/25
마감 5차 10/22-11/1 (단풍특선)
6차 10/29~11/8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롯데호텔 서울, 소노캄 여수, 소노캄 거제, 롯데호텔 제주
 라한셀렉트 경주, 롯데리조트 속초, 그랜드 조선 부산

워싱턴 최초 디렉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정동진 레일바이크/서귀포 유람선

최고급 호텔 숙박
 서울 롯데호텔/전주 한옥마을 라한호텔/여수 소노캄/거제 소노캄
 부산 그랜드조선/경주 라한셀렉트/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호텔

고객 입맛을 고려하여 특별히 엄선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고품격 고국일주와 동남아, 일본 여행을 한번에!

다낭 3박+고국 7박 (노옵션) 3차 11/9-11/20 \$3090+항공
일본 3박+고국 7박 4차 11/12-11/23 \$3590+항공

연합상품

- 3박 4일 **서남권 일출발** \$899+항공
- 4박 5일 **동해권 금출발** \$999+항공
- 5박 6일 **서남+제주 일출발** \$1499+항공
- 9박 10일 **전국일주 일출발** \$2149+항공
- 3박 4일 **동경** \$999+항공
- 3박 5일 **오사카** \$999+항공
- 8박 9일 **일본완전일주** \$2690+항공

고국 1~5차 모두 제주 빼고 다낭이나 일본을 갈 수 있습니다.
 고국+제주/다낭/일본 원하시는 일정으로 선택 가능.

Wonderful TOUR
 2024 Yearly Schedule

- 8/09~8/19 10박 11일 **북유럽 4개국** \$5290+항공
- 8/14~8/19 5박 6일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2290(항공포함)
- 8/15~8/21 6박 7일 **알래스카 일주** \$2990(항공포함)
- 8/30~9/06 7박 8일 **알래스카 크루즈** 인사이트 \$1990~부터(항공포함) 발코니 \$2590~부터(항공포함)
- 8/30~9/02 3박 4일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1290+항공
- 9/02~9/13 11박 12일 **영국일주** \$5890+항공
- 9/10~9/20 10박 11일 **정통 서유럽** \$3490+항공
- 9/18~9/26 8박 9일 **정통 동유럽** \$3290+항공
- 9/18~10/1 13박 14일 **동유럽&크로아티아 발칸** \$4390+항공
- 9/20~10/2 12박 13일 **파노라마 서유럽** \$3890+항공
- 9/23~10/2 10박 11일 **정통 서유럽** \$3490+항공
- 9/24~10/4 10박 11일 **고품격 고국일주 3차** \$2990+항공
- 9/25~10/1 6박 7일 **크로아티아 발칸** \$2890+항공
- 9/25~10/5 10박 11일 **그리스&튀르키예** \$2890+항공
- 10/03~10/16 13박 14일 **독일 일주** \$5690+항공
- 10/08~10/18 10박 11일 **스페인&포르투갈** \$3190+항공
- 10/09~10/19 10박 11일 **정통 서유럽** \$3490+항공
- 10/14~10/25 11박 12일 **호주&뉴질랜드** \$3790+항공
- 10/15~10/25 10박 11일 **고품격 고국일주 4차** \$2990+항공
- 10/17~10/30 13박 14일 **프랑스 일주** \$5690+항공
- 10/22~10/31 8박 9일 **튀르키예 성지순례(소아시아 7교외)** \$1990+항공
- 10/22~11/01 10박 11일 **고품격 고국일주 5차(단풍)** \$2990+항공
- 10/29~11/08 10박 11일 **산티아고 순례** \$3590+항공
- 10/29~11/08 10박 11일 **고품격 고국일주 6차** \$2990+항공
- 11/27~12/01 4박 5일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1190+항공
- 12/07~12/19 12박 13일 **남부카리브해 크루즈** \$1390(인사이트)
- 12/23~12/28 5박 6일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2390+항공
- 12/23~12/29 6박 7일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2390+항공

TMCI 고국 건강검진

- 세브란스(기본검진) 한국국적 남 \$555/여 \$595 미국국적 남 \$720/여 \$770
- 삼성서울병원(기본검진) 남 100만원, 여 113만원
-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460
- 경희대병원(특화검진) 남/여 \$610

현대아산병원/서울대병원/가천대길병원

동남아 여행 대한항공 한국자유여행 동남아항공 특가세일

| 방콕/파타야 | 푸켓 | 하노이/하롱베이 | 다낭 | 대만 | 싱가폴 |
|---|--|--|--|---|--|
| 3박 5일 \$590+항공 출발: 격주 목요일 워포시원, 콜로세움, 파티아 야시장, 산호섬, 전통수상시장, 플로팅마켓, 황금절벽사원, 꼬끼리 트래킹, 악어농장, 백만배위공원, 태극동산물 | 3박 5일 \$599+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팡야만 해양국립공원, 아프로디테스, 파동 야시장, 피피섬, 왓탈롱 사원, 꼬끼리 트래킹 | 3박 5일 \$590+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하노이, 엔드, 하롱베이, 허롱데파코, 호치민명묘, 생할관, 비단광장, 한기동사원, 수상인형극 | 3박 5일 \$499+항공 출발: 격주 일요일 마블미온틴, 호이안, 투봉강, 일본내원고, 전가사당, 풍홍의집, 광조화관, 바나힐국립공원, 후예성, 티엔무사원, 섀짜사원, 다낭대성당 | 3박 4일 \$690+항공 출발: 격주 목요일 국립공룡박물관, 자오공, 101빌딩, 라오후제 야시장, 서문경거리, 태로산협곡, 화전철성담 해변, 일월담, 구족문화촌, 아류래양 국립공원, 자우판거리 | 3박 5일 \$790+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국립박물관, 가든스 바이더베이, 리버윈더스, 헨드스웨이 브릿지, 허지레인, 부기스재래시장, 마리아연공원, 차이타운, 섀토사원, 실로스타비 |

성극 대니엘
 +아미쉬마켓 당일
 \$199
 8/1, 9/19, 9/14
 10/17, 12/12

동부관광 탑여행사가이드가 직접 행사합니다!
미동부 미동부 버스 특선
뉴욕·천심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매주 월출발 3박 4일 \$899
 대형버스 출발: 10/14

서부관광
미서부
 서부의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알찬 여행
 일출발 8박 9일 \$1450+항공

단풍관광
컴버랜드 기차여행
 당일투어 \$159 단풍여행 환영
 출발: 10/17(목), 18(금), 19(토), 24(목)
 10/25(금), 26(토), 11/2(토)

뉴욕 동부 명도 해안 특선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매주 월출발 2박 3일 \$650
 대형버스 출발: 8/5, 9/23

뉴욕 1박 2일 \$399
참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동굴 \$125
 DC런치크루즈 \$169(주중) \$199(주말)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일출발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수출발
알래스카 6박 7일 \$1550+항공 일출발
옐로스톤 3박 4일 \$930+항공 일출발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재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LOTTE PLAZA market

롯데플라자 마켓 물가잡기 프로젝트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EAT INFLATION WITH LOTTE PLAZA MARKET!



JUL. 18th - JUL. 25th, 2024



여름을 시원하게

실속가득 · 알뜰세일

Lotte Plaza Market Summer Big Saving Special

LIMIT 3EA PER HOUSEHOLD



씨없는 수박
Seedless Watermelon
~~\$9.99~~ **\$4.99** EA

씨비비고 포기김치
Whole Cabbage Kimchi
~~\$25.99~~ **\$15.99** 2KG



GRAND OPENING
Richmond, VA
7801 W Broad St.
Richmond, VA 23294

Sterling, VA
30 Ridgecroft Hill Dr.
Sterling, VA 20155

Centreville, VA
5900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Chantilly, VA
13955 Metroloch Dr.
Chantilly, VA 20151

Annandale, VA
5204 Port Royal Rd.
Springfield, VA 22151

Ashburn, VA
43930 Farwell Hunt Plaza
Ashburn, VA 20147

Herndon, VA
430 Elden Street
Herndon, VA 20170

Elicott City, MD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icott City, MD 21043

Catonsville, MD
6600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Rockville, MD
1902 Weyers Mill Rd.
Rockville, MD 20851

Gaithersburg, MD
221 Muddy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관심 중 오missions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상황에 따라 조기 품절 또는 수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민 / 유언장
T. 571.405.6540

파이낸스 & 연예/문화 Sports
부동산·금융·회계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July 18, 2024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당한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고급스런 아늑함 품은 인테리어 뜬다

최신 홈데코 트렌드 최근 인테리어 트렌드는 여전히 '조용한 럭셔리'가 강세지만 이 안에서 미묘한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 그 키워드는 '아늑함과 편안함'이다. 팬데믹 이후 웰빙에 대한 욕구가 상승하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테리어에서 가족 혹은 개인이 편안하게 쉬고 즐길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인테리어 트렌드에는 페인트 색상, 정원 트렌드, 그리고 홈데코까지 포함된다. 최근 홈 인테리어 디자인 및 트렌드 정보 제공 플랫폼 하우스(Houzz)가 내놓은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를 알아봤다. 이 보고서는 올해 1-3월까지 홈오너, 인테리어 전문가들이 해당 플랫폼에서 검색한 키워드 및 검색 인사이트를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작성된 것이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풍 미니멀리즘과 북유럽 인테리어 트렌드가 결합된 '자판디' 스타일 침실 인테리어. (unsplash.com 제공)

어둡고 차분한 침실 분위기 연출 인기 작은 독서공간 · 서재 꾸미기 관심 커

▶친환경 모던 스타일 인테리어에서 '모던 스타일'이라 하면 어찌저찌 차갑고 딱딱한 느낌일 것 같지만 최근 디자인 업계에서 모던 스타일은 훨씬 더 부드럽게 해석된다. 과거 모던 스타일이라 하면 깔끔한 선과 차가운 흑백 대비 컬러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따뜻한 느낌을 주는 갈색, 토프, 베이지 같은 뉴트럴 컬러를 그 특징으로 한다. 여기에 우드, 식물, 스톤 같은 내추럴 요소를 믹스해 '친환경 모던 스타일'을 완성한다. 하우스 보고서는 "특히 침실 인테리어에 있어 이 친환경 모던 스타일이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친환경 모던 베드룸' 검색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5%나 경증 뛰어올랐다. 또 '친환경 모던 다이닝룸' 검색은 146% 증가했으며 주방, 욕실, 거실 역시 '친환경 모던 스타일' 검색량이 증가세를 보였다.

인트 컬러도 깊고 어두운색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트렌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하우스에 따르면 '무디한 거실'과 '무디한 주방'에 대한 검색량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무디한 베드룸' 검색량도 85% 증가했다. 특히 침실은 아늑하고 친밀한 느낌을 원하는 공간이다 보니 갈수록 이 아늑한 컬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천정 역시 어두운 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인테리어에서 천정은 보다 넓어보이게 하기 위해 밝은 컬러가 인기였는데 최근 전년 동기 대비 '어두운 천장' 검색량도 6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최근 침실 트렌드는 넓어 보이는 것보다 아늑함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덕분에 침실 컬러로 리치한 브라운 또는 다크 레드도 주목받고 있다.

어 업계에도 상륙했다. 다크 아카데미 아란 지적인 매력과 고전적인 우아함을 강조하면서 여기에 낭만적인 분위기를 덧입힌 것. 인테리어에서 다크 아카데미는 아늑한 서재 혹은 꼭 독립적인 공간이 아니어도 책 읽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우스에 따르면 '다크 아카데미'란 키워드 검색량이 전년 동기 대비 219%나 증가했으며 영국식 작고 아늑한 공간을 의미하는 '스너그(snug)' 검색량도 2.5배 증가했다. 그렇다고 꼭 방 전체를 서재로 만들 필요는 없다. 거실 또는 침실 공간 일부를 독서 공간으로 만들면 되는데 이를 만들기 위한 라이브러리 벽(library wall), 읽기 코너(reading corner), 북넵(book nooks) 같은 검색어가 증가했다.

서 최근 인테리어 업계에는 자판디(Japandi) 디자인도 주목받고 있다. 이 신조어는 일본풍 미니멀리즘과 스칸디나비아의 기능성을 결합한 스타일을 의미한다. '자판디 거실' 검색량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으며 일본풍 자연스러운 인테리어를 의미하는 '와비 사비(wabi-sabi)'와 '젠 가든' 검색량도 각각 44%와 22% 증가했다.

▶다크 & 무디 어두우면서도 차분한 분위기의 침실 인테리어도 인기다. 그래서 침실 페

▶독서 공간 지난해 패션계에 불어닥친 다크 아카데미(Dark Academia)가 인테리어

▶자판디 디자인 내추럴한 분위기가 강세를 보이면

▶웰빙 최근 인테리어 업계에서는 좋은 욕조에 투자하는 것이 트렌드다. 그래서 인지 냉수욕을 위한 콜드 플러지(cold plunge) 검색량이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으며 실내 사우나, 홈스파, 야외 사우나 검색량도 증가했다. 또 채광 좋은 창문과 큰 창문도 인기를 끌고 있어 검색량이 각각 27%와 41% 증가했다. 이주현 객원기자
▶4면 '홈데코'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 가치 극대화 및 성공적인 매각 목표
- 입주전 전체적 통합 서비스 제공
- 순조로운 임대차 계약 및 갱신 업무
- 최적의 입지와 컨설팅 제공
-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 맞춤형 주택 매입과 최고의 주택 매각

승경호 추천 매물

| | | | | |
|--|--|--|--|--|
| 스시 식당 알링턴 버지니아, 판매가: 50만 1900 SF, Rent 8900 SF 연매상 \$1,058,000 | 버지니아 상가건물 3백10만불, 1.8에이커 Cap Rate 7%, 임차 5개 연순수익 \$218,000 | 디시 유명 델리 주인 없이 운영 판매가 55만불 정부임주 건물 1층 순수익 = 주인운영 없이 1만불 | Beer & Wine Shop 주2만불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메릴랜드 조건부임대계약 50만불 | 상가 맥클린, 단독건물 4백5만불, 6,000 SF |
| 식당 자리 4,675 SF, 임대 메릴랜드 락빌 | 단독 건물 에난데일 최고의 상권, 2500 SF 식당, 카페, 맥주 전문점하면 좋은 자리 임대 문의 바람 | 사무실 에난데일, 1200 SF 사무실, 병원적합, 35만불 | Beer & Wine Shop 주1만8천불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버지니아 조건부 임대계약, 35만불 | 상가 비엔나, 버지니아 상가매매 연순수익 52만불, 8백만불 |
| 창고 전기시설 완벽한 창고자리임대 9000 SF, 헌트, 버지니아 | 사무실 워싱턴 디시, 교통 좋은곳 사무실 임대해실 회사찾습니다 | 콘도 방2개, 화장실2개, 차고1개 있습니다 메트로근처, 웨그맨옆 관리해드립니다 매매가 49만불 | 상가 발티모어상업건물 (임대수입) 1층식당+2층+3층아파트, 1백1십만불 | 이 자리에 광고받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

주 택 투자 컨설팅 주재원 렌딩 서비스 703.928.5990 **승경호**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창고 사 업 체 공장 / 사무실 / 창고 설립 k@dwellwashington.com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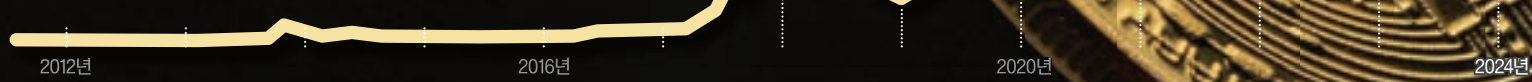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사지

미국 최대 투자은행 JP모건의 최고경영자(CEO) 제이미 다이먼은 여러 해에 걸쳐 비트코인을 '애완 돌(pet rock)' '바보들의 금(fool's gold)'이라고 부르며 무시해 왔다. 하지만 그의 딸은 비트코인을 사들여 JP모건 주식보다 더 큰 수익률을 냈다. 심지어 지금은 JP모건도 비트코인에 일정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미국의 대기업들도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는 추세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중남미 국가 엘살바도르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서울해 2월 기준 40%의 수익률을 냈다.

비트코인 가격 단위: 달러, 자료: 트레이딩뷰



6만271달러
(7월 3일 오후 6시 기준)



“비트코인이 바보들의 금? 진짜 바보는 화폐 신봉자”

사이페딘 아모스 레바는 아메리카대 경제학과 교수의 얼굴을 합성했다. 아모스 교수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의 경제고문이기도 하다. [사진 다산복스]

미국 월가의 조롱을 받던 비트코인은 15년 만에 위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공식 승인했다. 홍콩 정부도 지난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승인했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이자, 아시아에서는 최초다.

하지만 아무리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비트코인에는 피할 수 없는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과연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사이페딘 아모스 레바는 아메리카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트코인의 상용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아모스 교수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의 경제 고문이다. 그는 지난 달 1일 서울 광화문에서 머니랩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5년간 비트코인은 많은 이의 예상을 뒤엎고 빠르게 성장했다”며 “앞으로 성장 속도가 더뎠다고 해도 20~30년 뒤엔 세계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글로벌 화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모스 교수는 정부가 비트코인의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정부의 허

가 필요하지 않으며, 정부 규제가 강화될수록 오히려 그 가치가 더 빛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한국에 출간된 『더 피아트 스탠다드(The Fiat Standard)』를 통해 무한정 돈을 찍어내는 정부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법정화폐(법화) 사이의 ‘통화가치적 모순’에 대해 지적했다. 법정통화 본위제는 미국 정부가 금 대환 의무를 사실상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고육지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아모스 교수는 “오히려 지금의 법화 체계는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들여다 보면 비트코인보다 특이하고 기형적인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화는 정부가 채무 불이행에 대처해 온 역사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 본위제 폐지 이후로 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모두가 미래를 담겨쓰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는 등 기형적인 자본시장을 만들어 버렸다”며 “이러한 불안정한 시스템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모스 교수는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제프리 삭스 교수의 조교로 일하며 ‘지속가능

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학문의 영향을 받았다.

-여전히 비트코인이 화폐가 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생각보다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에서도 비트코인을 받는 술집이 있다. 어젯밤 동료들과 방문한 한 바에서 술값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했다. 물론 여전히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엔 갈 길이 멀다. 현재 전 세계의 현금 자산 총 규모가 약 300조 달러다. 비트코인의 가치(시가총액)는 1조 달러 밖에 안 된다. 나는 궁극적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300조 달러의 현금 자산 수요를 비트코인이 대체할 것이라고 믿는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앞으로 300배 성장할 여력이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비트코인 전체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면.

“비트코인의 종말 가능성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정부가 비트코인을 공격할 거란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비트코인을 단속하고 옥쇄수록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가치를 전 세계에 광고하는 꼴이 될 뿐이다. 오히려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정부가 비트코

인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막는다면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수요에 타격을 주겠지만, 결국 사람들은 이를 비트코인이 제공하는 재정적 자주권과 걸림 저항성의 가치가 상당히 크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많아질수록 정부 개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치를 갖는 화폐 자산을 보유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 커질 것이다.”

-역사적으로 정부 반대를 이겨내고 살아남은 대상이 있다.

“마약이 대표적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50년간 마약과의 전쟁을 치러왔다. 그동안 미국, 멕시코, 콜롬비아 등 세계 각국에서 수백만 명이 죽거나 투옥됐지만 여전히 길거리에서 마약이 통용된다. 마약은 비트코인보다 단속하기 쉬운데도 정부 통제를 벗어난 지 오래다. 비트코인은 마약보다 강력한 인센티브(동기)를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이미 제도권으로 진입했다. 신시아 루미스 미 와이오밍주 상원의원은 비트코인을 공개적으로 옹호했고, 워런 데이비스 오하이오주 하원의원도 마찬가지다. 그 밖에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미국 의원이 많다.”

-정부가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할 수 있을까.

“엘살바도르 사례를 보면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그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굳이 당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사용자에게 가치를 제공하면서 자유 시장에서 계속 살아남으면 그만이다. 오스트리아 경제학파는 사람들이 현금을 보유하는 이유가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불확실성이 큰 세상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해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 법화는 인플레이션 특성상 현금으로서 기능이 약화됐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현금 대체제를 찾았고, 주로 국제나 금 등을 보유한다. 이제 비트코인도 이 목록에 추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자산이다.”

-미국 중심의 달러 패권이 무너지는 게 가능할까.

“로마 제국을 생각해 보라. 어떤 국가도 수요와 공급의 경제 원칙을 거스릴 수는 없다. 계속 돈을 찍어내면 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는 모든 제국 몰락의 원인이었다. 이미 개인들은 법화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

배정원 기자

▶ 4면 '비트코인'으로 이어집니다

| | | | | |
|---|--|--|--|--|
| <p>주6일 프랜차이즈 \$320K 페어팩스 버지니아</p> | <p>주6일 Deli \$370K 몽고메리 메릴랜드</p> | <p>주6일 Deli \$180K PG 메릴랜드</p> | <p>주6일 Deli \$250K 페어팩스 버지니아</p> | <p>프랜차이즈 카워시 코인런드리 리커 그로서리</p> <p>미셸신 케빈신</p> <p>703.395.3123 FORTUNE Realty Advisors</p> |
|---|--|--|--|--|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주요 근육 관절 통증
-산전/산후 통증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저세교정 운동 (축만중, 후만중)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내용

-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중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 통증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교통사고·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어, 캐쉬플랜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센터빌, 철틀러 지역]

미국·유럽 가상자산법 시동 ... 717억 달러 시장 활성화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미 의회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쌓여있는 여러 일 중, 가상자산에 주의 를 기울이게 된 건 긍정적입니다.”

지난달 18일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SEC 사무소에서 만난 헤스터 퍼스 SEC 상임위원은 최근 미국 내에서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에 관한 논의가 늘어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월 미 하원은 가상자산 제도화 법인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FIT21)을 통과시켰고, 이 법은 현재 미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퍼스 의원은 “가상자산 규제만 명확했다면 (FTX 같은 거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파산 등) 각종 불법 활동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체가 없는 가상자산을 계속 법적 규제가 모호한 회색 영역에 남겨 둘 것인가, 아니면 제도권 안으로 편입 시킬 것인가. 최근 글로벌 흐름은 후자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용자 보호부터, 불확실성 제거까지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선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감받고 있어서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올해 717억 달러(약 98조 원, 스테티스타). 미국이 규제를 위한 걸음을 땀 사이, 유럽연합(EU)은 법 시행에 들어가는 등 세계 각국이 가상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은 투자자 보호

지난달 30일부터 유럽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세계 최초 포괄적 법안인 ‘가상자산시장에 관한 법률(MiCA)’이 일부 시행됐다. 자산준거토큰(ART, 특정 자산 기반으로 발행되는 토큰) 및 전자화폐 토큰(EMT,

기존의 전자화폐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토큰) 외 기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은 오는 12월 30일 부터 시행된다. MiCA의 핵심은 투자자 보호다. 가상자산 산업의 대표적인 문제인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금융 서비스에 적용되던 내부자 거래 금지 등의 원칙을 가상자산에도 적용했다.

MiCA에는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CASP) 및 가상자산발행인에 대해 엄격한 승인 조건이 담겼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발행자와 이용자 간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 법적 의무 공시 사항을 담은 백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MiCA 법안 제정 당시 주도적 역할을 한 에로 헤이넬루오마 EU 의원은 “이용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만큼 가상자산 업체를 제대로 규제하는 게 중요했다”며 “ART 및 EMT 발행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를 명시한 게 큰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MiCA는 내부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의(제87조)하고 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내부 정보의 불법적 공개(제89, 90조)를 금지하고 있다. 헤이넬루오마 의원은 “이 조항이 완전하게 효과를 내려면 국가 관할 당국의 올바른 시행과 집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규제가 가져온 시장 활성화

유럽 가상자산 업계에선 MiCA로 인해 시장이 일부 위축된 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규제가 생긴다는 건 기회라는 반응이 많다.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이다. 유럽 가상자산 전문 벤처캐피털(VC) 그린필드의 크리스티안 짐머만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아직 가상자산 규제가 없는) 미국의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유럽으로 이전하거나, 미국 창업자가 유럽 중 미국에서 가장 가까운 리스본으로

글로벌 주요 가상자산 규제



유럽연합(EU) MiCA 2024년 6월 시행

- 27개 회원국 전체에 적용 효력 있음
-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사업자에 암호화폐 백서 발행 의무 부과



영국 2024년 7월 말까지 입법 예정

- 기업이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의 승인 필요



미국 FIT21 2024년 5월 미국 하원 통과

-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위해 해당 자산과 관련된 블록체인 시스템이 충족해야 할 5가지 기준 제시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할 명시

규제 명확히 해 투자자 보호 나서 미 의회·SEC, 가상자산 규제 마련 유럽연합은 단독 법안 이미 시행 비트코인 현물ETF 승인도 이어져



헤스터 퍼스

캐롤라인 팜

아담 지

제이슨 소멘사토

이전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을 보유한 미국(2023년 32조원, 스테티스타)은 유럽보다 규제에 소극적이었다. 그



체 체이널리시스의 제이슨 소멘사토 북미정책총괄은 “미국 정부 내 가상자산 생태계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고 말했다.

규제 기관도 적극 움직이고 있다. 가상자산 규제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 캐롤라인 팜 상임위원은 지난달 17일 “자금조달 등 증권과 연관된 가상자산 행위는 SEC가 관할해야 하지만, 그 외에 블록체인화 된 쿠폰, 게임에 사용되는 가상자산 기술 등의 활동은 CFTC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바뀌면, 세계가 바뀐다

미 증시에 상장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존 오로건 아시아태평양 양지역 담당자는 “미국 규제 동향을 대다수 주요국들이 주의 깊게 보고 있기에,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이 높아지면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를 중심으로 증권사·투자은행 등이 활동하는 ‘전통 금융’ 영역과 가상자산 산업간 결합도 빨라질 전망이다. 올 초부터 미국·홍콩·호주 등의 금융 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고 있다. 미국 ETF 운용사 글로벌 X의 아담 지 상품개발팀장은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를 위해 ETF 상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글로벌X는 지난 3월 비트코인 가격 추세를 반영하는 ETF 상품인 ‘글로벌X 비트코인 트렌드 전략 ETF’를 출시했다.

윤상안·권원진 기자

나빈 힌고라니의 마켓 나우

지금은 ‘중국 제외 신흥시장’에 투자할 때

최근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주목받는 전략은? 중국 비중을 줄이고 ‘중국을 제외한 신흥시장(Emerging Markets ex China, EMXC)’에 집중하는 전략이다. 최근 지표에 따르면 중국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향후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특히 지속적인 미·중 긴장과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 때문에 서방의 압박이 중국 기업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EMXC는 공급망 다변화와 풍부한 유동성 등의 요인 덕분에 장기적인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 지정학적 요인, 탈탄소화 등 구조적 요인이 공급망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에 중국으로 향하는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둔화하는 반면, 다른 경쟁국들은 글로벌 FDI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들이 주도하는 거대한 전환은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인 과정이며, 많은 신흥시장 경제와 기

업에 막대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가장 큰 수혜자는 아세안(ASEAN), 라틴아메리카, 인도,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지역은 저렴한 노동력과 양호한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주요 원자재들의 주 생산국이다. 대부분 인구가 많고 젊은 층 비율이 높아 경제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이들 국가의 제조업 부가가치의 합은 중국의 절반 이하다. 따라서 공급망을 중국에서 약간만 이전해도 이들 국가의 제조업 부가가치가 많이 증가한다.

현재 선진국과 신흥시장의 기업들

은 자본적 지출을 늘리고 있다. 역사적으로 자본적 지출 증가와 신흥시장의 성과 사이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EMXC는 소재·산업·금융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그린 인프라의 확장은 원자재에 대한 수요를 급증시키기 때문에 원자재가 풍부한 신흥시장에 수혜를 입게 된다.

풍부한 유동성 또한 매력적인 요소다. EMXC에는 시가총액이 20억 달러 이상인 상장 주식이 1200개 이상 있기에 투자 가능한 범위가 매우 넓다. 이는 유럽연합과 일본을 훨씬 능가하는

규모다. 그런데도 신흥시장 투자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중국의 경제 규모와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며 신흥시장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7%다. 그러나 이는 다른 신흥국가들의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가리고 분산 투자 효과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투자자들은 중국과 ‘중국을 제외한 신흥시장’을 분리해 투자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투자 비중과 위험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고 신흥시장의 장기적 성장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이스트프림 싱가포르 포트폴리오 매니저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페어팩스 타운홈 알렉산드리아 타운홈 페어팩스 싱글홈 페어팩스스테이션 싱글홈

\$875,000

방3, 화3.5, 차고2, 2001년산 End Unit, Super Location, Walk-Out, 새지붕, 2층 새카펫, New Appliances

렌트 \$3,200

방3, 화2.55, 차고1, 전체마루 한인 커뮤니티센터근처, 굿로케이션, Move-in Ready

\$880,000

방4, 화3, 차고2, Ranch 스타일, 1.12 Acre, All Brick, 새지붕&새 거터, 잘 가꾼 뒷마당 숲이 아름다운 집

\$1,250,000

방 4/ 화 3.5/ 차고2, 코너집, 굿로케이션, Many Upgraded, Library, Recreation Room, 아름다운 정원, 주인이 잘 관리한 집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김경아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여권 사진 | 가족 사진 | 아기 사진 | 커플 사진 | 반려동물 사진 | 기념일 사진

한국에서 유명한 셀프포토 스튜디오가 6월에 센터빌 오픈했습니다!

“나만의 방 안에서 그 누구 눈치 안보고 편하게 찍을 수 있는 셀프 포토 스튜디오에 환영합니다”

예약 문자 / 전화: 703-400-7099

14260M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SELFOTo STUDIOS

www.Selfotostudios.com

온라인 예약

2금융 건설·부동산 대출 부실지표 9년 새 최악 은행권 연체율도 올라



고금리 장기화로 건설·부동산업 부문의 대출 부실이 심화하고 있다. 이 여파로 저축은행을 비롯해 제2금융권의 건전성 지표는 최근 1년 사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말 기준 비은행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각각 7.42%·5.86%로 집계

됐다. 이는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분기(3.38%·3.15%)와 비교하면 1년 사이 2.2배·1.9배로 높아졌다.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 이하여신(NPL) 비율도 늘어나는 추세다. 저축은행에선 건설업이 19.75%, 부동산업이 14.26%를 나타냈다. 건설업의 경우 1년 전(4.41%)의 4.5배 수준이다. 부동산업도 1년 전(4.36%)보다 3.3배 늘었다. 은행권에서도 건설·부동

산업 연체율이 각각 1.01%·0.24%를 나타냈다.

분양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고금리 국면이 지속되고, 공사비가 상승하는 등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건설·부동산업의 재무 위험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건전성 관리에 나선 2금융권은 대출 문턱을 높인 상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 말보다 12조8000억원 줄었

다. 상반기 5대 은행의 부실 규모도 늘었다. 올 상반기 3조2704억원 어치 부실채권을 상·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2조2232억원)의 1.47배 수준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 상황이 악화한 상태라 취약 차주(대출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압력이 한동안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효정 기자

전세사기 줄어도 역전세↑ 상반기 보증사고 2.7조

HUG 대위변제, 전년비 53% 늘어 강서구 화곡동에 보증사고 집중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 2조7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6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액은 2조6591억원, 사고 건수는 1만2254건으로 집계됐다. 보증사고액은 작년 같은 기간(1조8525억원)보다 43.5% 증가했다.

HUG는 “빌라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 사고는 지난해 대대적으로 이슈화되며 점차 줄고 있다”면서도 “역전세 여파가 워낙 큰 탓에 보증사고액이 작년보다 늘었다”고 밝혔다.

집값이 정점이던 2021년 하반기 이후 체결된 전세계약 만기가 작년년부터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높은 가격에 전·월세를

체결했지만 2년여간 전세 사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빌라·연립주택 등 가격이 곤두박질쳤다. 이 때문에 역전세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2월을 정점으로 4개월 연속 줄었다. 보증사고액은 2월 6489억원에서, 3월 4938억원, 4월 4708억원, 5월 4163억원, 6월 3366억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월 3000억원 이상이어서 올해 연간 보증사고액이 역대 최대치였던 작년 규모(4조3347억원)를 뛰어넘어 5조원에 육박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상반기 내어준 돈(대위변제액)도 2조422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상반기 대위변제액 1조3347억원보다 53% 늘었다. 전세 보증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나타났다. 백민정 기자

길어지는 건설 경기 침체, 공공 주택공급에 적신호

고금리, 공사비 급등 등으로 건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며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4일 LH에 따르면 시행사나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동주택 토지를 분양받은 뒤 대금 연체 등으로 공급 계약이 해지된 용지가 올해 상반기에만 총 13개 필지, 95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상반기 계약 금액(1필지·222억원)의 약 43배에 달하고, 작년 연간 계약 금액(5개 필지·3749억원)과 비교해도 2.5배 많은 규모다. LH는 토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대금이 연체돼도 사업 의지가 있으면 바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데, 연체 이자가 계약금을 넘어서거나 분양받은 업체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계약금을 포기하고 토지를 반납할 때 보통 계약이 해지된다”고 설명했다. 계약이 해지되면 시행사·건설사는 공급 금액의 10% 수준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고금리·공사비 급등 여파 이어져 토지 분양 계약해지 올해만 9522억 사전청약 취소에 분청약 지연 속출

한 중견 건설사 임원은 “토지를 분양받고 3년간 금리·공사비가 다 올랐는데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를 올려 받을 수도 없다”고 귀띔했다. 이 때문에 공공택지에서 사전청약까지 진행됐지만 사업을 접는 단지도 나오고 있다.

올해 1월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우미건설)을 비롯해 지난달엔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DS네트웍스), 화성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리젠시빌주택) 등 5개 사업장이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시행사인 DS네트웍스는 “급등한 공사비에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지에서 사전청약이 당

첨된 1510가구는 졸지에 날벼락을 맞았다.

건설업체에선 사전청약 취소 단지가 또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아직 분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24곳, 1만2827가구 규모다.

공공택지 공공분양은 분청약이 줄 줄이 밀리고 있다. 다만 공공분양은 분청약이 늦어져도 민간분양처럼 사업이 취소될 우려는 없다. LH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사전청약 255가구),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A2블록(709가구)·A3블록(341가구)은 9월 분청약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올해 분청약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던 13개 단지의 분청약은 최대 1년 7개월까지 늦춰질 전망이다.

3기 신도시인 경기 남양주왕숙 A1·A3블록, 하남교산 A2블록은 오는 9월 분청약 예정이었지만 내년 3월로 연기됐고, 시흥거모 A6블록 신혼희망타운 분청약은 올해 12월에서 2026년 7월로 1년 반 넘게 지연된다.

백민정 기자

▶ 1번 '홈데코'에서 이어집니다

이제는 집 안에 더 많은 자연광을 들여 심신을 건강하게 지키려 하는 현대인들의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 레크리에이션 공간

가족들이 함께 쉬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오락 및 휴식 공간도 인기를 끌고 있다. 청음실(listening room) 검색량이 전년 동

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거실 피아노 검색량은 39% 증가했다. 이는 홈오너들이 음악을 즐기려 하는 전용 공간에 대한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게임룸과 같은 레크리에이션 공간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 특히 여름을 맞아 야외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탈리아 구기 경기의 일종인 보체 경기를 할 수 있는 보체 코트(bocce court)인데 관련 검색량이 23% 가량 증가했다.

▶ 2번 '비트코인'에서 이어집니다

피파姆 흘러 번 소득을 고스란히 은행에 넣어두면 가치가 떨어지는 게 과연 당연한 일인가. 법화 체제에서는 근로소득,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투자 소득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 왜 의사, 운동선수, 엔지니어, 기업가, 회계사 등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자유시장

에서 이미 획득한 부를 단순히 지키기 위해서 금융 등 별도의 전문 지식을 쌓아야 하나. 과거 금본위제에서는 필요 없는 노력이었다.”

-비트코인 ETF 투자를 추천하나. “나쁘진 않지만,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ETF 투자 상품의 경우 이를 관리하는 사람에 따라 리스크가 있지만, 직접 보유한 비트코인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비트코인 외 다른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건 어떤가. “비트코인은 유일하게 탈중앙화된 가상자산이자 엄격히 검증 가능한 희소성을 지닌 최초의 유동자산이다. 다른 가상자산들도 ‘탈중앙화’를 키워드로 내세우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다른 가상자산 투자는 추천하지 않는다.”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용자는 그린웨이 홈론 **배준원** 용자에 맡겨 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whomelending.com
(NMLS# 178471)

센터빌 오피스 **토요일도 오픈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1시 무료상담)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마트 건너편 위치)

GREENWAY HOME LOANS
VA, MD, DC, NC, TX, PA, SC, FL

Greenway Home Loans,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SB,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icense Numbers: DC.ML2501870; MD 2501870; NC.L-218065; VA.MC-7782; TX.2501870; PA.106823; SC.2501870 Greenway Home Loans Inc. NMLS# 2501870 www.nmlsconsumeraccess.org

숯세일, 포클로저 주택 Sale 전문

제임스 박 부동산

| | | |
|---|---|---|
| Dumfries Town 급매!! 3 br 3.5 baths, 1 car, 1,772sf Walkout Bsmt, 2005 \$410,000 (시세 \$50만) | Gainesville Single 급매!! 4 br 3.5 baths, 2 car Walkout Bsmt, 2002 \$570,000 (시세 \$67만) | Silver Spring Town 급매!! 3 br 2+2 baths, 1,464sf End Unit \$400,000 (시세 \$50만) |
| Woodbridge Single 급매!! 4 br 3.5 baths, 2car Walkout Bsmt, 1999 \$480,000 (시세 \$60만) | Manassas Single 급매!! 4 br 3.5 baths, 4,200sf 3 car \$690,000 (시세 \$80만) | |

571.242.4500
james2424500@yahoo.com

NVAR 2012 LIFE-TIME Top Producer
VA / MD Associate Broker **제임스 박**

VA FAIRFAX HQ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GIANT REALTY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7월 **HOT** 리스팅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수 있어,
파리 뒤를 쫓으면 번소 주변을, 꿀벌 뒤를 쫓으면 꽃밭을,
부동산 비키리와 함께하면
부동산에 안목이, 삶이 풍부해집니다.

셀러-집팔때 신경쓰기 싫고, 부동산이 주인 입장에서 잘 알아서 해결해 주기 원할때,
비키리 부동산에 전화 주세요.

바이어-매물 부족, 이자율 상승으로 힘든 바이어 마켓에 어느때보다 전략이 절실한 때 입니다.
확실히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질문도 성심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주택 매매 / SALE



비엔나 타운홈

방3+화3+차고2
2001년, 2100sf
겔로스로드 던로딩 메트로
도보로 5분거리

\$970,000

주택 매매 / SALE

페어팩스

타운홈 방3+화3, 차고1 **\$70만불대**

타운홈 방3+화3, 차고2 **\$80~\$85만불대**

센터빌

타운홈 방3+화3 **\$45만불~\$60만불**

타운홈 방3+화3, 차고1 **\$60만불대**

타운홈 방4+화3, 조지메이슨 대학 부근 **\$630,000**

임대

조지메이슨 대학부근

싱글홈 2층 넓고 환한 방1 임대: 여학생 환영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웅자 칼럼

바이다운 (Buydown)



배준원 그린웨이 펀딩그룹 부사장

많은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쉬이 떨어지지 않는 이자율에, 여전히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주택가격까지 바이어의 부담은 쉽게 줄어들지 않는 듯 하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가끔은 바이다운을 활용해서 우선 당장의 페이먼트를 줄이는데 혹하는 이들이 많이 보인다.

최근 부쩍 바이다운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는데 오늘 지면을 빌어 바이다운의 허와 실을 나누고자 한다.

먼저 바이다운은 말그대로 이자율을 초기 비용을 들여서 일시적으로 낮추는 걸 의미한다. 많은 이들이 포인트 (discount point) 와 혼동 하는데, 포인트 와 바이다운 모두 초기 비용을 내고 이자율을 낮추는 것은 같은 맥락이지만 포인트의 경우는 초기비용을 지불하고 일정부분의 이자율을 용자기간 전체동안 낮추는 걸 의미한다. 반면 바이다운의 경우는 초기비용을 들이고 그만큼의 초기 비용만큼 일정기간동안 이자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걸

의미한다.

통상 2-1 바이다운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첫해에는 원래 이자율보다 2%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고 2년째는 1%가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는다는 걸 의미한다. 예를 들어, 원래 30년 고정 이자율 6.75%를 받는데 2-1 바이다운을 활용한다면 처음 1년동안은 2% 낮은 4.75%에 해당하는 페이먼트를 납부하게 되고 두번째 해인 그다음 1년동안은 원이자율보다 1% 낮은 5.75%에 해당하는 페이먼트를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3년째부터 남은 30년 까지는 원래 이자율인 6.75%로 납부하게 되는 걸 의미한다.

사실상 바이다운의 초기비용은 바이다운 기간동안 각각 줄어들게 되는 페이먼트 만큼 초기비용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첫해 매달 \$400씩 줄어들게

되어서 일년에 \$4,800을 감소하게 되고 두번째 해에 \$200씩 줄어서 일년간 \$2,400이 감소하게 된다면 바이다운 초기비용은 2년동안 줄어드는 페이먼트 합산 비용, 즉 \$7,200이 소요되는 것이다. 따라서 페이먼트 절감 효과가 실제에 있는 것은 아니다. 미리 돈 낸만큼 초기 일정기간동안 그만큼 덜 내게 되

어서 부담을 줄이는 것이니 말이다.

포인트의 경우는 내가 미리 돈을 내고 이자율을 줄이는 혜택을 내가 받을 수 있지만 바이다운의 경우는 바이다운 비용을 바이어가 부담을 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셀러가 지불해주는 방식이 유일하다. 즉, 셀러가 바이어에게 당장 높은 이자율의 부담을 비용적으로 지원해주면서 페이먼트 부담을 초기에 일부 낮춰줌으로써 바이어가 보다 쉽게 높은 페이먼트에 적응을 수월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구입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보게 된다. 즉 바이다운은 셀러가 제공해주는 자금 지원으로 바이어로 하여금 당장 초기 1-2년 동안 높은 페이먼트 부담에서 어느정도 여유를 제공하고 그만큼 구매력을 높여주는 효과를 준다는 데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또, 바이어의 인컴이 짧은 미래에 인상될 거라고 예상될 경우 당장의 구매파워를 미래의 인상된 인컴만큼 높여주는데 그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 포인트 처럼 내가

구입해서 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므로 그 차이는 분명하다.

당장의 높은 페이먼트 부담을 가시적으로 감소시켜주는 효과는 있지만 바이다운이 끝나는 일정기간 후 부터는 다시 원래의 이자율로 올라간다는 점에서 이에 대비한 출구전략이 확실하게 대비되어야 하겠다.

사실상 워싱턴 인근 지역은 여전히 강력한 셀러 마켓이라 바이다운을 제공하는 리스팅을 그리 쉽게 볼 수 있는 않아 보인다. 다만 향후 시장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바이다운이 제공되는 주택을 구입하는 바이어들에게는 이를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문의: 703-868-7147

셀러의 판단

올 상반기의 뜨겁던 분위기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금리 인하를 예상하던 사람들이 고금리가 생각보다 길어질 조짐을 보이자, 경기의 움직임을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하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까지 예정되어 있어, 경기 뿐만 아니라 정치 쪽 움직임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모든 거래가 그렇듯, 팔려는 사람은 높게, 사려는 사람은 낮은 가격에 사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기존 가격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거래에서는 어느 정도가 적정 가격인지 정하기 위해 여러 데이터를 사용하기 마련이다. 다만 이런 데이터를 사용해도 가격을 정하기는 쉽지 않다. 부동산의 경우는 플랜과 사이즈가 비슷한 큰 단지의 콘도나 타운 홈의 경우가 아니라면 가격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특히 단독 하우스라면 같은 사이즈라도 업그레드, 땅의 크기, 부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클 수 있다. 은행은 정확한 가격 산정을 위해 감정을 하게 된다. 물론 이 또한 100%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부동산 거래에서는 가격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리스팅 에이전트는 셀러에게 리스팅을 받기 전에 셀러의 매물이 어느 정도 가격이 적당한지 최근에 거래된 데이터를 근거로 설명하고 리스팅 가격을 정한다.

대다수의 셀러는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

지만, 의외로 많은 셀러가 잘못된 판단과 부정확한 정보 등으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된다.

이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할 에이전트는 리스팅을 받고 보자는 생각으로, 셀러의 제시 가격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마켓에 올린다. 셀러가 바이어를 만나서 온 좋게 에스스로 들어갔다고 해도, 현금 바이어가 아니라면 감정 문제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 보면 마켓에 오래 머물다가 가격을 내려, 나중에는 마켓에서 거두어들이거나 셀러가 지쳐 마켓 시세보다 더 싸게 파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집을 마켓에 올리고 첫 2주가 제일 중요하다. 셀러는 이 시기를 놓치면 전략을 다시 수정해야 한다. 첫 2주간을 허비하면 오히려 나중에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특히 바이어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는 시기이니만큼, 처음에 집을 내놓을 때가 중요하다. 만약에 이 기간에 오퍼가 없다면, 셀러와 에이전트는 새로 집을 보기 시작하는 바이어들을 잡기 위해, 계속해서 가격을 내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주변에 새로 나온 집들과 경쟁까지 해야 해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지금처럼 마켓이 식어가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판단과 올바른 결정이 오히려 빠른 시간안에 성공적으로 집을 파는 지름길이다.

에릭 만-드림부동산 부사장

구매 타이밍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의 하나는 '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싸고 좋은 매물 있으면 소개해주세요'라는 당부입니다. 이 말을 저에게 하시는 분들은 상업용 부동산 구매 경험이 없는 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마켓의 상황과 어떤 부동산이 구매하기에 좋다고 말씀을 드리면 돌아오는 답변은 너무 비싸다거나 너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선수'들이 활발하게 쇼핑을 하는 시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시장은 처음으로 상업용 투자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하는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들은 당연히 남들이 다 좋아하는 부동산에만 눈길이 가고 그나마도 조심스럽게 사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급기야 주변에 지인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면서 완벽하게 사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기분 좋게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험상 주변 지인에게 물어봤을 때 안 좋은 이야기를 할 확률이 100%라고 할 정도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께 조바심을 가지기보다는 좋은 매물에 안될 것을 알면서도 오퍼도 써보면서 감각을 익혀나가게 도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시장에서 거래하고, 또 거래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위에서 언급한 '선수'들인데, 이미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여러 차례 거래해본 경험이 많은 투자자입니다.

이들은 마켓의 가격이 올라가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도 올라가서 마음이 좋고, 마켓의 가격이 낮아지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현금흐름을 이용해서 추가로 건물을 구매할 기회를 얻습니다.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은 싸고 좋은 매물이 마켓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싼 매물은 문제가 있는 매물이기 쉽고, 좋은 매물은 그만큼 가치를 요구합니다.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재현된다 해도 초보 투자자들은 여전히 과감한 투자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니다. 반대로,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은 이자율이 최저치를 기록하여 건물가격이 매일매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시기에도 적절한 건물을 발견하고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부동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와 타이밍입니다. 이자율이 높으면 가격 하락 압력이 강해지고, 반대로 이자율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가격 상승 여력이 생깁니다.

가장 좋은 구매 시기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최적의 구매 타이밍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부동산 전문가를 만나서 도움과 신뢰를 나누며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어느 순간 본인이 경험 많은 선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렉스 유-CBRE Korean Desk 대표

1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 신문! 중앙일보

REALTY MARYLAND 리얼티 원 부동산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 | | | | | |
|--|---|---|--|--|--|
| SOLD Bowie \$645,000 싱글홈, 방4, 화4, 차고2 | UNDER CONTRACT Edgewater \$575,000 싱글홈, 방3, 화2, 0.45에이커 | SOLD Rockville \$280,000 콘도 | COMING SOON Perry Hall 싱글홈, 방3, 화2 | UNDER CONTRACT Elkridge \$559,000 타운홈, 방4, 화3, 차고2 | |
| UNDER CONTRACT Elkridge \$950,000 싱글홈, 방5, 화3.5, 차고2 | UNDER CONTRACT Ellicott City 55+ Luxury \$425,000 콘도, 방2, 화2, 1,438sf | UNDER CONTRACT Ellicott City \$475,000 타운홈, 방2, 화2.5, 차고1 | COMING SOON Rockville 싱글홈, 방5, 화2, 차고2 | SOLD Cockeysville \$470,000 싱글홈, 방4, 화2.5 | |
| RENTED Elkridge 월 \$2,400 타운홈 방3, 화3 | RENTED Sliver Spring 월 \$3,500 타운홈 | RENTED Germantown 월 \$2,100 콘도 방2, 화2 | RENTED Hanover 월 \$2,650 타운홈 방3, 화3, 차고1 | RENTED Germantown 월 \$2,000 타운홈 방2, 화3 (지하실 제외) | RENTED Glen Burnie 월 \$1,750 콘도 방2, 화1 |

RENT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애난데일 703-354-1515
 2층 소품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7월 스페셜 SALE

최신 제품으로~ 업계최초 GH 자연건강 현재 매장내 체험가능 입정기념 20%세일!



가격은 내리고 성능은 올리고

102개의 지압봉 백돌이 온열지압 온열 지압침대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지압, 마사지, 온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무이자 할부 최고 36개월



GH 온열 지압 침대의 특징

102개의 지압봉 + 2WAY 시스템 + 1-SHOT 침대

- 업계최초 102개의 지압봉으로 구성
-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 인체 공학적 특수 설계 (지압봉 편심방지 기능 탑재)
- 강력한 파워를 기반으로 한 소음 최소화
- 지압, 마사지, 온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 동작중인 지압봉의 위치표시



본토 휴침대는 세계 최초로 장판을 덮지 않고 고온에 굽지도 않고, 화학성분을 단 1%도 사용하지 않은 채소를 키워서 먹을 수 있는 생황토로 만들어진 '누드 휴폼'을 사용한 자연주의 제품입니다.

게르마늄 카우치 싱글침대 평상



장운정의 휴표 휴 매트 침대

휴표 휴침대 워싱턴 대리점

해초를 고아 황토로 빻어 만든 휴표 휴침대와 산소 발생 특허기술이 만나 탄생한 산소를 공급하는 휴침대

- 황토에 한약재를 넣고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 침대
- 높은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침대
- 산소와 피톤치드를 공급하는 침대
- 산림욕 효과
- 슬립뎀질 찜질효과

휴표 휴 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한 휴표 휴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퀵사이즈 \$1,199
 싱글사이즈 \$899

▶ 전면: 고급 인조 양털
 ▶ 후면: 고급대(竹) 자리

황토세라믹 원적외선 체내흡수 전자파 완전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휴매트

월턴편백반신욕기

버지니아 워싱턴 월턴 지정 대리점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찜질방 방식으로 제작
- 3 100% 300년 이상 최고급 리오스산 히노키 원목
-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 5 3중 고온 안전처리
-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팀 기능
-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5,000 \$3,500 빅빅 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 명품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들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입정기념 세일 \$1,799 \$1,499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3 간단 편리한 작동
 2 특정한 뉴질랜드 원목 4 우수한 안전성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건식 반신욕기 거기를 채우고 찜질을 푸세요~

발목펌프 자동운동기

몸속까지 시원한 수직 지압 마사지!

Made in KOREA

1/4인체 강력모터의 파워 발목펌프 자동운동기의 특징

하루에 5분만 사용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혈압, 당뇨, 혈관질환 개선효과, 오십견, 관절염 증 완화 효과

Hand/Wrist Massager

오사키 손목 마사지기 Osaki OA-AA01

손목, 손바닥, 손가락 마사지가 가능합니다.

\$150 \$129

NURIEYE-5800

눈 마사지기

안구건조증 치료 의뢰기기

피로한 눈, 뻑뻑함, 눈곱감, 이물감, 뿌연시야, 눈부심, 충혈

\$129

Osaki OS-RK181

눈 마사지기

• 에어백 마사지
 • Shiatsu 지압
 • 온찜질 / 진동
 • USB 충전
 • 내장 스피커

\$129

★ 히트상품 ★

마사지건

헤드 진동마사지 딥 티슈 마사지 건

바누 banu

저당 밥솥

밥솥만 바뀌도 탄수화물이 빠진다!

실드 라이프

전자파 차단, 자동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보온매트

전자매트 시장점유 1위 차지

일월 개회몽 매트

2020년 최우수 제품

황토볼 원적외선 매트

기모극세사 온열매트

온 가족 따뜻하고 편안하게~

워셔블 매트로 물세탁 가능 일월의 최첨단 7중 안전 시스템

토르마린 매트

토르마린의 효능

- 원적외선 방사
- 미네랄 분출
- 음이온의 계면활성 효과
- 깊은 속면으로 유도

한일의료기

마루형 전기매트

한정판매/조기품절/가능 제품

중형 \$199 대형 킹사이즈 \$399

스팀보이 온수매트

난방비 걱정없이 겨울 따뜻하게~

스팀보이는 환경 호르몬 Safety Zone

외국인 감독 선임 실패... KFA 재정난 주범 따져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KFA)에 대해 총체적인 점검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논란이 된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뿐만 아니라 충남 천안에 건설 중인 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운영 상태를 심도 있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16일 "KFA의 운영과 관련해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쏠린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더해 최근 KFA의 재정 악화 주범으로 손꼽히는 천안 트레이닝센터 건립 상황까지 주요 사업 추진 과정을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KFA는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로 분류돼 문체부의 직접 감사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4대 프로스포츠(야구·축구·농구·배구)를 중심으로 여러 종목 단

문체부, 축구협 총체적 점검 준비 "천안 트레이닝센터 건립비 큰 몫"

체가 '정부 유관기관'으로 지위가 바뀌면서 문체부가 관리·감독할 수 있게 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KFA가 경쟁력 있는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지 못한 배경에 새 트레이닝센터 건립 비용 급증에 따른 재정난이 큰 몫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축구협회가 해당 시설 건립 과정에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는지 들여다보면서 자연스럽게 최근 논란이 되는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까지 함께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KFA 감사에 앞서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FIFA가 산하 축구협회에 대한 정치적 간섭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FIFA 정관 14조 1항 1호 및



KFA가 새 트레이닝센터 건립 비용 급증으로 재정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른쪽 사진은 건설 중인 트레이닝센터. [뉴스, 사진 구글]



[뉴스, 사진 구글]

19조 1항은 '각국 축구협회가 자신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과도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라크·수단·쿠웨이트·인도 등 여러 나라가 축구협회 행정에 정부가 과도하게 관여했다는 이유로 자

격 정치 징계를 받았다.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흑역사 징계 사유가 발생한다면 한국 축구의 월드컵 11회 연속 본선 진출 도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과거 FIFA의 징

계를 받은 나라의 경우 축구협회장 임명, 행정 관여 등 정부의 개입이 과도했다"라면서 "현재 준비 중인 감사에 KFA가 국민적으로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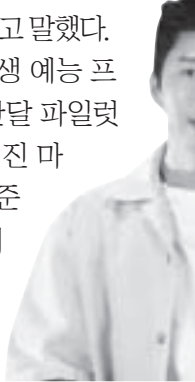
송지훈 기자

임영웅도 언니들도 간다 '촌캉스'

TV·유튜브, 시골 체험 예능 붐물 "할머니일 잇는 MZ 힐링 트렌드" 박나래 등목 '나혼자' 예능 1위 탈환

전현무와 박나래가 '촌캉스'(시골+바캉스)를 제대로 즐겼다. 시골집에서 꽃무늬 티셔츠에 일바지 차림으로 사진도 찍고 시원하게 등목도 했다. 저녁엔 직접 캔 더덕에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5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의 분당 최고 시청률은 9.6%(닐슨)까지 치솟았다. 6개월 만에 한국갤럽의 '한국인이 가장 즐겨 보는 방송' 1위를 탈환했고, 한국기업평판연구소 7월 화제성 지수에서도 예능 프로그램 평판 1위를 차지했다. '나 혼자 산다'를 연출하는 허항 PD는 전화 인터뷰에서 "트렌드를 잘 아는 박나래가 촌캉스를 제안했다. 촌캉스가 젊은 층에 인기 있는 콘텐츠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시골이 배경인 신생 예능 프로그램도 많다. 지난달 파일럿 방송한 MBC '이 외진 마을에 왜 와썹'은 박준형·브라이언·차니(NCT) 등 재미교포 가수들의 좌충우돌 시골 탐험기



임영웅

다. 18일 시작하는 tvN '언니네 산지직송'은 염정아·안은진·박준면·텍스 등이 출연하는 어촌 리얼리티 예능이다. 첫 회 게스트는 배우 황정민이다. 이은지·미미·이영지·안유진이 출연하는 MZ세대 대표 예능 tvN '뽕뽕 지구오락실'은 최근 스펀오프 '지락이의 뽕뽕뽕'을 내놓았다. 가장 먼저 경기도 가평의 한옥으로 촌캉스를 떠났다. 멤버들은 도착하자마자 일바지로 갈아입고 밀짚모자를 쓴 채 농촌 분위기에 녹아들었다.

방탄소년단(BTS) 진은 전역 후 첫 예능으로 MBC '꼭 쉬면 다행이야'를 선택했다. 무인도 폐가를 '0.5성급 호텔'로 고쳐 시청자를 초대하는 콘셉트인데, 안정환·봄·김대호 등이 호텔 직원으로 나온다. 방송일은 미정이다. 가수 임영웅도 촌캉스 열풍에 합류했다. 이달 중순 차승원·유혜진과 tvN '삼시세끼'를 녹화한다. 4년 만에 돌아오는 '삼시세끼 어촌편' 녹화를 앞두고 라이브 방송에서 임영웅은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진짜 내 모습대로 사는 걸 여러분께 가까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자체 제작 유튜브 콘텐츠에서도 촌캉스가 대세다. 걸그룹 에스파는 무대 위 강렬한 모습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변신했다. 직접 장작불을 붙여 삼겹살을 굽고 고무신 던지기 게임으로 친목을 다지는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팬들에게 전했다. 2PM의 준케이·니쿤·우영도 강원도 홍천으로 자급자족 촌캉스를 떠나는 자체 유튜브 예능을 공개할 예정이다. 가로등도, 편의점도 없고, 인적도 없는 환경에 놀라는 모습이 예고편에 담겼다.

촌캉스 예능은 요즘 젊은 세대의 힐링 추구 트렌드를 반영한다. 이런 트렌드는 소셜미디어(SNS)에서도 확인된다. 인스타그램에는 관련 키워드의 게시글이 9만건 이상이고, 촌캉스 콘셉트 여행 인증샷은 100만건이 넘는다. 특히 일바지를 입고 막걸리를 나눠 마시는 사진이 많다. 논밭을 멍하니 보며 머리를 식히는 '논멍' '밭멍' 등의 신조어도 생겼다.

인하대 이은희 명예교수(소비자학)는 "약과 양갱 등 '할머니일'(할매+밀레니얼, 할머니 취향의 밀레니얼 세대) 메뉴가 인기였는데, 그 흐름이 촌캉스로 이어졌다. 젊은 세대에게 시골 풍경이 색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푸근한 힐링 공간인 동시에 감성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트렌디한 곳"이라고 말했다.



1 어촌마을 일상을 담은 예능 '언니네 산지직송'. 2 할머니를 잇는 '나 혼자 산다' 전현무·박나래. 3 자체 예능에서 강원도 홍천으로 떠난 2PM 준케이·니쿤·우영. [사진 tvN, MBC, JYP,]

다. 경쟁적인 도시의 삶에서 벗어나는 걸 보는 것만으로 시청자에게 힐링 포인트"라고 분석했다. 국내 농어촌 배경 예능은 고물가, 고환율로 인한 제작비 급증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안이기도 하다.

황지영 기자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구글지도 광고로 경쟁사를 앞지르세요

가장 잘 보이는 TOP3 업체 위에 사장님 사업체를 뜨게 해 드립니다!!

고객이 많이 찾는 구글 로컬 검색대..

새고객, 매출 증가가 잘 안되시나요?
내 사업 불경기 탈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 저렴한 비용
2. 편리한 물서비스
3. 믿을 수 있는 회사 (2002년 부터 지금까지)

웹사이트 제작, 구글광고 & SEO, 고객 리뷰관리, 소셜미디어 광고, 문자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기타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a gift card: 선물권

(Two co-workers are talking in the office...)
(직장 동료 둘이 사무실에서 얘기한다...)

Selma: I can't believe that December is already here.
셀마: 벌써 12월이라니 믿어지지 않아.
Eric: Christmas will be here before you know it.
에릭: 금방 크리스마스가 올 거야.
Selma: I got a jump on my Christmas shopping so I'm almost done.
셀마: 난 일찍 크리스마스 쇼핑을 시작해서 이제 거의 다 끝냈어.
Eric: I haven't even thought about it.

에릭: 난 생각도 못했는데.
Selma: That's just like you ... always shopping at the last minute.
셀마: 딱 너답다... 항상 막판에 쇼핑하는 것.
Eric: Not this year. This year I'm not going to shop.
에릭: 올해는 아냐. 올해는 쇼핑 안할 거야.
Selma: You're not buying presents for anyone?
셀마: 아무한테도 선물 사주지 않을 거야?
Eric: I didn't say that. I said I'm not going to shop.

에릭: 그렇게 얘기한 건 아냐. 쇼핑을 안한다고 한 거지.
Selma: You lost me. What are you going to do?
셀마: 무슨 얘기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Eric: I'm buying gift cards for everyone.
에릭: 모두한테 선물권을 사줄 거야.

"I made my vacation plans early this year because I wanted to get a jump on everyone." (전 올해 휴가 계획을 다른 사람들 보다도 먼저 미리 세웠습니다.)
▶ at the last minute: 마지막 순간
"I got some extra tickets at the last minute." (제가 아주 마지막 순간에 입장권을 몇개 더 구했습니다.)
▶ lose (somebody): 혼동시키다. 못알아듣게 하다
"Can you say that again please? You lost me." (다시 말씀해주실래요? 못알아들었는데요.)

기억할만한 표현

▶ get a jump on (something):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하다

날말퀴즈

| | | | | | | | | |
|----|----|----|----|----|----|----|----|----|
| 1 | | 2 | | | 3 | 4 | | 5 |
| | | | | 6 | | | | |
| 7 | 8 | | 9 | | 10 | | | 11 |
| | 12 | 13 | | | 14 | 15 | | |
| | | | | | | | | |
| 16 | 17 | | 18 | | 19 | | | 20 |
| 21 | | | 22 | 23 | | | 24 | 25 |
| | | 26 | | | | | 27 | |
| 28 | | | | | 29 | | | |

가로열쇠

(1)외투용으로 곁에 입는 한복, 사대부는 집에 있을 때에도 ~를 입는 것을 예의로 삼았다 (3)술에 취하여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 (7)남자 무당 (9)풀이나 낙엽 따위가 썩어서 된 흙. 원예에 주로 사용한다 (11)관청에서 관리에게 빌려주어 살도록 지은 집 (12)말이나 물건에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 그르치는 일. 녀석은 그 나이에 오래 그렇듯이 온갖 ~를 다 치고 다녔다 (14)남다른 기풍이 있어 보이는 골격이 건강하고 큼 (16)살빛이 희고 고결하여 신선과 같은 풍채 (19)혼인 때에, 신랑이 신부 집에 타고 가는 말 (21)신혼부부가 가져하도록 새로 꾸민 방 (22)길고도 세차게 잘하는 말솜씨. 쓸데없이 장황하게 늘어놓는 말 (24)추첨에서 뽑힌 (28)몸과 땅은 돌이 아니고 하나임. 자기가 사는 땅에서 산출한 농산물이라야 체질에 잘 맞음.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 ~/우리 몸엔 우리 건네/남의 것을 왜 찾느냐/고추장에 된장 김치에 각두기/잊지 마라 잊지 마 나와 나는 한국인/~(김동찬) (29)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림

세로열쇠

(1)우물물을 퍼 올리는 데 쓰는 도구 (2)잡채 안에 바다과 사이를 띄우고 간 날랜지 (4)사람의 음성으로 하는 음악. 악곡의 종류에 따라서는 창가·민요·가요·가곡 따위로 구분하고, 연주 형태에 따라서는 독창·중창·합창·제창으로 구분한다 (5)말씀하시되, 공자 ~ 오는 손 부끄럽게 하지 말고 가는 발길 욕되게 하지 말라 (6)말라서 떨어진 나뭇잎 (8)손가락과 젓가락 (9)아류의 몸속에

있는 공기 주머니 (10)원시 시대에 쓰던, 흙으로 만든 그릇 (11)대변을 보게 하려고 약물을 항문으로 넣어서 직장이나 대장에 들어가게 하는 일 (13)편평한 대지의 끝과 하늘이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선 (15)산과 산 사이에 깊숙이 패어 들어간 곳 (16)서로 물으니 그르니 하며 다루는 모양. □□□□ (17)큰방의 뒤쪽에 딸린 작은방 (18)시체를 지상에 노출시켜 자연히 소멸시키는 장례법 (19)타쿠나없는 햇소문 (20)집의 앞이나 뒤에 평평하게 뒤아 놓은 땅 (23)빛이 나아갈 때 빠르기 (25)산과 선덕 여왕 때 세운 천문 기상 관측대 (26)불경을 외는 일 (27)반죽을 가늘고 갈게 뽑아낸 식품 (1)외투용으로 곁에 입는 한복, 사대부는 집에 있을 때에도 ~를 입는 것을 예의로 삼았다 (3)술에 취하여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 (7)남자 무당 (9)풀이나 낙엽 따위가 썩어서 된 흙. 원예에 주로 사용한다 (11)관청에서 관리에게 빌려주어 살도록 지은 집 (12)말이나 물건에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 그르치는 일. 녀석은 그 나이에 오래 그렇듯이 온갖 ~를 다 치고 다녔다 (14)남다른 기풍이 있어 보이는 골격이 건강하고 큼 (16)살빛이 희고 고결하여 신선과 같은 풍채 (19)혼인 때에, 신랑이 신부 집에 타고 가는 말 (21)신혼부부가 가져하도록 새로 꾸민 방 (22)길고도 세차게 잘하는 말솜씨. 쓸데없이 장황하게 늘어놓는 말 (24)추첨에서 뽑힌 (28)몸과 땅은 돌이 아니고 하나임. 자기가 사는 땅에서 산출한 농산물이라야 체질에 잘 맞음.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 ~/우리 몸엔 우리 건네/남의 것을 왜 찾느냐/고추장에 된장 김치에 각두기/잊지 마라 잊지 마 나와 나는 한국인/~(김동찬) (29)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림

스도쿠

| | | | | | | | | | |
|---|---|---|---|---|---|---|---|---|---|
| 8 | | | | 5 | 1 | | 6 | 4 | |
| 3 | 5 | 6 | | | 2 | | 7 | | |
| | 4 | | | | 6 | | | 9 | |
| 7 | | | 4 | | | | | 2 | |
| | 6 | | | | 7 | | | 5 | |
| 4 | 9 | | | 3 | 5 | | 8 | | |
| 5 | | 8 | | 9 | | | 2 | | |
| 6 | | | | | 3 | 1 | 9 | 8 | |
| | | | | 1 | 2 | 8 | 4 | 5 | 6 |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 | | | | | | | | |
|---|---|---|---|---|---|---|---|---|
| 9 | 5 | 4 | 8 | 2 | 1 | 7 | 3 | 6 |
| 8 | 6 | 1 | 3 | 7 | 5 | 4 | 2 | 9 |
| 3 | 2 | 7 | 4 | 6 | 9 | 8 | 1 | 5 |
| 7 | 8 | 9 | 5 | 3 | 2 | 1 | 6 | 4 |
| 5 | 4 | 6 | 7 | 1 | 8 | 3 | 9 | 2 |
| 2 | 1 | 3 | 6 | 9 | 4 | 5 | 8 | 7 |
| 6 | 3 | 5 | 9 | 8 | 7 | 2 | 4 | 1 |
| 1 | 7 | 8 | 2 | 4 | 6 | 9 | 5 | 3 |
| 4 | 9 | 2 | 1 | 5 | 3 | 6 | 7 | 8 |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 | | |
|---------------------------------|--|--|
| 성명 (Name) | 영문 (Eng) | 한글 (Kor) |
| 주소 (Address) | | |
| 연락처 (Phone #) | Home | Cell |
| 구독료 (Subscription Fee) | 1년 선납 \$150 |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
| 카드 정보 (Card Info) |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 카드 유효 기한 (EXP. DATE): / / CVS: month year |
| 신청서 보내실 곳 |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
| 20 년 월 일 서명 (sign): | | |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교통사고
- 직장사고
-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 릴레이
THE SIXTH SENSE

식스센스

오늘의 주제 후회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손준혁 · 장우혁 · 양영순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양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World Bankcard Service가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로 찾아왔습니다.



1 새로운 크레딧 카드 기계:
결제 중 끊김과 오랜 결제 시간 등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결제를 보장합니다.

2 새로운 POS 시스템:
효율적이고 신속한 POS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간편한 운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3 더 낮은 카드 수수료:
부담스러운 고물가 시대!
사장님들을 위해 더 낮은 카드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World Bankcard Service와 함께라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와 함께 성공을 이루어가십시오. 더 많은 정보 및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함께하는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함께 성장해나가는 여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 703-225-5500, 1-800-927-5675 | FAX 703-225-5507
10855 FAIRFAX BLVD 3rd FL., FAIRFAX, VA 22030
World Bankcard Service

7월
구
인
광
고

사업체 매매

이준식 부동산

- Seafood Carry Out
- Pickup Store(bowie) \$30,000
- Single House Rent \$3,200 (Catonsville).방4, 화3+1/2

문의
301-768-1240

뉴욕 광어낚시 동우회 회원 모집

마감 목요일 저녁 6시까지 접수 마감

주말 금요일 밤 Frederick(MD) 270, 80 교차로 E. EXXON GAS STATIONS에서 3명 이상 모여서 출발.

토요일 아침 뉴욕에 도착해서 Seo Queen VII Boats 7시 보트 출발, 차량, 낚시대 완비

202.553.85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 이중언어 우대
-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롯데플라자 스티어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티어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 풀타임/파트타임
- * 영어/컴퓨터 사용
-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구함 노임 전문 변호사

체불임금 80만불 받아내면 50%씩 나눠가지기로 합니다.

Looking for a lawyer specializing in labor.

If we receive \$800,000 in unpaid wages, we will split 50% each.

Glimck2@gmail.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라이선스 교육 가능
-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앤틱 한국 수출 관심있는 분

빈티지 & 앤틱 가구, 전축, 차이나셋트, 정원용품 등 1900-1950 년도 까지 물품들 무역, 수출 원하시는 분 고정 거래처 있으며 현재 월 한 컨테이너 (40')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Manassas, VA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벽,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 욕실·주방 리모델링 전문
- ▶ 마루·텍·케비넷 샌딩 보수
- ▶ 타일·목수·HoA 지적 신속 수리
- ▶ 핸디맨·플로잉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Movers LLC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 ◆ 백금(Platinum)
- ◆ K14, K18, Setting 전문
- ◆ G.I.A. E.G.L.다이아몬드 판매
-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 각종 집수리 일체
-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무역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프,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올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전

후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벌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전

후

이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7월의 핫딜세일

매달 찾아오는 핫딜의 통큰 세일혜택!
이번 달에도 아낌없이 받아주세요~

H O T D E A L S S U P E R S A L E

1 강력한 5중 차단
2 광노화 안티에이징 케어
3 윤기나는 건강한 피부

**UV protector
Tone-Up
SPF50+ PA++++**

HERA
UV PROTECTOR MULTI-DEFENSE
BROAD SPECTRUM
ANTI-AGING
HYDRATING SUN CREAM
SPF50+/PA++++

무료 배송
Free Shipping

초강력 5중차단과 안티에이징, 마일드 UV, 품질대란템

들뜸없이 밀착&촉촉, 멀티 기능성 데일리 선크림 50ml
헤라 UV 프로텍터 멀티디펜스

1개 \$32 2개 \$55

무료 배송
Free Shipping

Crotchless Panty Hose (20 DENIER)

여름 밀트임 스타킹으로 가볍게 라운딩을 즐기세요! 발고리형

울트임방지, 자외선차단, 편리한 통풍, 올누드타입, 밀트임 보네프리 **여름용 20D 골프 스타킹**

Crotchless Panty Hose 1개 \$19 2개 할인 \$36

ORELIAN

KSBA

무료 배송
Free Shipping

NEW 인견x크레오라 엑스크로스 쿨 텐션 브라&팬티 4세트

깃털처럼 가볍게! 아이스 스킨, 베이지 스킨, 펄사이닝 스킨, 블랙
오렐리안 쿨 텐션 브라팬티 4세트

차원이 다른 가벼움과 극강의 쾌적함 ~~\$99.99~~ \$70.99

무료 배송
Free Shipping

M.house

누비차렵이불 누비패드 베개커버

박홍근 홈패션 [구성] 누비차렵이불, 누비패드, 베개커버

자연을 닮은 아름답고 건강한 침구로 생활가치를 높이는 일
엠하우스 시어서커아사 세트 K

핑크, 블루 차렵패드세트 King Size ~~\$200~~ \$169

강력한 탈수
사용용기
물받침대
국내생산

9 단계
E제어판
ISO
ISO 13485
SK
Chemicals
다기능소재
특허등록

무료 배송
Free Shipping

요거트메이커, 유청분리기 야채 탈수기, 니물 두부 물기 제거

프리미엄 에코젠소재+검증된 포스코 SUS304스프링 사용
플루딕 잘순이 **그릭요거트 메이커**

9단계 강도조절 가능한 압착형 탈수 시스템 \$38.75

무료 배송
Free Shipping

곰팡이 제거
Disinfectant Deodorizer Gel
Silicone Gel Mold

곰팡이백서x3개입 겔타입으로 편리하게 곰팡이 제거!

욕실 줄눈, 배수구, 찌든 때와 곰팡이 원인까지 제거!
바르는 곰팡이 제거젤 **곰팡이백서**

우리집 살림 끝판왕! 3개입 특가 \$35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L.A. 기타 지역

매매 구인

30년 이상된 **미용재료상**
 안전한 라티노 지역
 역적: 인벤토리만
 LA 지역 (818)746-0521

성업중인 **우수선가게**
 토렌스 PV지역, 3만5천
 년매 8만 (310)995-8925

최신 정보, 다양한 리스팅, 최고의 광고효과
 중앙안내광고의 자랑입니다

Hello K Town
 미국 생활에 대한
 고질리티 리얼정보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게재
 All about US Life!

구인

RENT

렌트 부동산

미국 라이프 모든 것

자동차

전문업체

문의 213.368.2525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HOT DEAL LA KTown 213.368.2611
 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법학박사 허위트리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형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험트신화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산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오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80~90대 · 비아그라 효과 없는 남성도 30분 전에
1알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강직도 · 지구력 단번에 해결, 만성 발기부전,
 전립선비대증, 고혈압, 통풍, 근본 원인 치료

남성용 1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남녀공용 성욕 강화제 유희유
 1-213-210-9720/papaaaa.com

서류 대행업소 매매

LA 한인타운 최고의
이민, 법률 서류 대행 사무실
 · 가격 \$36만 · 주5일 (9-5시)
 · 월순의 \$1만5천 · 30년 운영 은퇴
 (213)712-4294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치로 살면 **Up to 40% 할인**
 핫산삼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흥세인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강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치로 췌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루 쟁점으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한방병원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희노씨]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미주 동시게재??!!**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미주 전지역의 광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김 공급 및 가격으로 힘드시죠?

안전 인증 최고 맛 최저 가격

전국 최저 김밥김/스시김 한국산 취급 중국산 취급

한국산 고급 POS 종이 (한솔제지 최고급) (50roll / Box)

식당용 고급냅킨 (2Ply 3,000장)

고급 대나무 젓가락 커스텀 디자인 제작 (2,000개 / Box)

213.985.4200 DOKDOSUPPLY.COM

■ 김밥용 전장김 (100장, 50장) ■ 일식당용 반장김 (200장, 100장)

청해김은 2015년부터 DOKDO SUPPLY 회사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고급김 Brand로 현재 남가주에서 500여 곳 및 전국 일식당 1,000여 곳에서 애용되고 있습니다.

독점 Woodbridge 타운홈

방3, 화3, 2 Car Garage, End Unit, Update Kitchen, 새 페인트, 밝고 환한집

\$549,900



독점 RESTON VA 타운홈

완전히 리모델링한 넓고 환하고 깨끗하고 예쁜집, 방3, 화1/1.

\$479,900



독점 Manassas Park 싱글홈

완전히 리모델링한 넓고 환하고 깨끗하고 예쁜집, 2 Car Garage, 앞뜰과 뒷뜰 넓은 데크!

\$690,000



독점 Centreville 타운홈

좋은 위치의 밝고 깨끗한 환한 집, End Unit, 새로 단장한 마루, 부엌, 화장실, Granit top, All new appliance, 백야드 팬스.

\$439,900



독점 단독주택 Alexandria

리모델링한 부엌 (새 주방용기, Granite counter-tops), 리모델링한 화장실, 새 나무 마루, New Paint, 방4, 화장실2, As-Is

\$579,9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사실 분·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